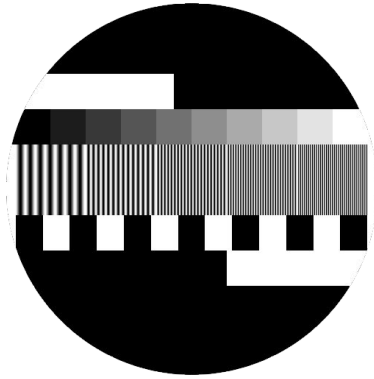


Monoskop Exhibition Library



모노스콥 전시 도서관

Conceived and convened by Dušan Barok

Curated by Lim Kyung Yong

Seoul Mediacity Biennale

Seoul Museum of Art

2018

With thanks to Minkyung Kim, Jaewon Cho, Yeunjo Park, Signe Lidén and Helen Ku

Published by Monoskop, Amsterdam
in collaboration with The Book Society, Seoul
monoskop.org, thebooksociety.org
5 September 2018
No copyright
Typeset in Noto Sans

Digital copy is available at
https://monoskop.org/File:Monoskop_XL_Seoul_2018.pdf

Dear friends and collaborators,

Monoskop has been invited to create a work for the upcoming 10th edition of Seoul Mediacity Biennale. The biennial is shifting its focus to become more public-oriented event and we are happy to be part of this. [1]

As a loose follow-up to the earlier initiative *Ideographies of Knowledge* [2], we decided to involve friends and collaborators of Monoskop and invite one hundred people and collectives to help us create an installation-exhibition.

The new work is set to explore the notion and medium of *art catalogue*. You are kindly invited to present a collection of arranged situated artefacts in the form of a catalogue of imaginary exhibition.

The catalogue has been long recognized as indispensable companion to an exhibition. From early ones such as David Teniers' *Theatrum Pictorium* and Lambert Krahe's catalogue of Düsseldorf Gallery, through modern scholarly catalogues such as Alfred Barr's *Cubism and Modern Art*, to today's online exhibition companions, catalogues carry exhibitions through time and space, figuring as tropes for reimagining arrangements and the course of works and settings they describe. They range from simple inventories, through multimedia databases to scholarly catalogues, where besides visual documentation, writers reflect upon and argue about the art in question.

Because of their descriptive and referential nature, we may think of catalogues as secondary to exhibitions, even though there are examples of when they come first. For example, in the tradition of using documentation as artistic device [3], Seth Siegelaub organised several catalogue-exhibitions such as *July, August, September*

1969 [4]. Another example is *An Anti-Catalog* created by the Artists Meeting for Cultural Change to protest the Whitney Museum's highly problematic bicentennial exhibition in 1977 [5]. The catalogue is set to outlive an exhibition, this is how the exhibition gets published. Nonetheless, we feel that the imaginative power of the medium of catalogue has much more to offer.

For this work, we are inviting artists, designers, curators, poets and researchers to explore the catalogue as an artistic medium. We are asking you to contribute something quite peculiar, *a catalogue of yet unrealised, imaginary, potential, or impossible exhibition*. Catalogues often follow the conventions of a bound volume of printed paper or a website, while their other non-traditional, abstract, three-dimensional, fragmented and unstable forms remain unexplored. As publications, they are also often wordy and linear, while we may think of them more generally as *forms invoking arranged and situated collections of objects*.

Contributed works will be brought together as a collection of imaginary exhibitions. The installation will be available to visitors, designed as a platform for gatherings and workshops during the biennale. Imagine someone staging an actual exhibition by "reverse engineering" your catalog!

We would like to invite you to imagine an exhibition and catalog it. The form of the catalogue is not restricted, nor are the things and works in it, nor the way you choose to represent them. You are free to include images, captions, introductions, samples of objects, media, etc. The bottom ground for a catalogue is but a few things: title, names of objects, author, and date. As an artefact, it may as well take the form of a handwritten note, a video, a PDF of composite pages, an artist's book, a model, a quilt, an audio recording, a dataset,

a software, and so on. *Every catalogue will represent an imaginary exhibition.* Besides unfolding the idea of exhibition catalogue, questions we are asking more broadly is what and how is it exhibitable together, how to represent it and surely there are more. Please do feel encouraged to involve others in making this happen.

The biennale exhibition opens on 5 September 2018 and we would like to collect contributions by 25 August. If your project is too ambitious to be realised in time, please hang on, there might be an opportunity in the future! We will be happy to accept your contributions by e-mail or post. We will be able to assist a number of participants with shipping costs.

The address:

xl@monoskop.org

OR

Minkyung Kim, Coordinator
Seoul Mediacity Biennale Office, B1
Seoul Museum of Art
61 Deoksugung-gil, Jung-gu
Seoul
Korea 04515

Your work will be credited and your name included with the installation. Visitors will be able to interact with it and even though there will be invigilators in the museum, we can't guarantee the condition of all catalogues will be 100% preserved.

All contributions will be documented in an online edition of the work. We are planning to invite several contributors based in Korea to events during the biennial and hope to engage more participants in future iterations.

Holiday motives are welcome as well. In addition, the biennial theme is "good life".

We are happy to discuss your participation!

Yours,

Dušan Barok, on behalf of Monoskop
Lim Kyung Yong, on behalf of Seoul
Mediacity Biennale & The Book Society

[1] <https://www.e-flux.com/announcements/170381/seoul-mediacity-biennale-2018/>

[2] https://monoskop.org/Ideographies_of_Knowledge

[3] The tradition of using documentation as artistic device includes for example documentary photography (*Neues Sehen*, American Documentary Photography, Düsseldorf School of Photography, New Topographics), object and installation (Institutional Critique, Archival Art, artists' museums such as Marcel Duchamp's *La Boîte-en-Valise* and Marcel Broodthaers' *Department of Eagles*), conceptual art, video art, and film installation (Chris Marker, Harun Farocki, Hito Steyerl).

[4] https://monoskop.org/Seth_Siegelaub

[5] <https://monoskop.org/log/?p=9848>

친애하는 친구와 동료에게,

모노스콧은 올해 서울미디어시티 비엔날레에 초청되었습니다. 격년으로 진행되는 이 전시는 보다 대중적인 행사가 되기 위해 초점을 바꾸고 있으며 우리는 이번 전시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1]

모노스콧은 <지식의 이데오그래피>[2]라는 프로젝트의 후속 프로젝트로 우리의 동료와 협력자의 참여에 기반하여, 100 명이 넘는 사람과 단체를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의 새로운 작업에서 우리는 '미술 카탈로그'의 개념과 매체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당신은 상상의 전시 카탈로그 형식 안에서 인공물 컬렉션을 보여주기 위해 초대되었습니다.

카탈로그는 오랫동안 전시에 없어서는 안될 동반자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David Teniers의 Theatrum Pictorium과 Lambert Krahe의 뒤셀도르프 갤러리 카탈로그, Alfred Barr의 입체파와 현대 미술과 같은 현대적인 학술 카탈로그에서, 오늘날 온라인 전시 카탈로그까지 카탈로그는 시공간을 가로지르며 작품이 묘사하는 배경과 작품의 과정과 배치를 새롭게 상상하게 만듭니다. 카탈로그는 단순한 목록부터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학술적인 카탈로그까지 다양한데 시각적 문서 외에도 작가가 논의가 되는 예술에 대해 반성하고 논쟁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설명적이고 참고적인 본성 덕분에 우리는 카탈로그가 전시에 선행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시의 부대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술적인 장치로 도큐멘테이션을 활용하는 경우애,[3] 세스 지겔라웁은 몇 가지 카탈로그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July, August, September 1969》[4]. 또 다른 예로는 1977년 휘트니 뮤지엄의 논쟁적인 전시에 반대하는 Artists Meeting for Cultural Change가 제작한 『An Anti-Catalog』도 있습니다. [5] 카탈로그는 전시보다 오래 살아남도록 만들어졌고, 이것은 전시가 출판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카탈로그 매체의

상상적인 힘이 훨씬 많은 것을 제공한다고 느낍니다.

이번 작업을 위해 우리는 예술가, 디자이너, 큐레이터, 시인, 연구자 그리고 출판 편집자 등을 초청하여 카탈로그를 예술적인 매체로 사유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상당히 독특한 어떤 것을 요청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고, 상상적이며, 잠재적이거나 혹은 불가능한 전시의 카탈로그입니다. 카탈로그는 종종 인쇄된 종이 묶음이나 웹사이트와 같은 관습을 쫓아가지만, 반면에 다른 전통적이지 않은, 추상적이고 3 차원의 분절되고 안정되지 않은 형식은 아직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출판물들은 자주 장황하고 선형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일반적으로 사물의 컬렉션을 호출하는 형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증하신 작업(작품)은 상상의 전시를 위한 컬렉션으로 함께 보여지게 됩니다. 이 설치의 비엔날레 기간 동안 워크숍이나 모임을 위한 플랫폼으로 디자인되어 방문객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카탈로그를 “거꾸로 추적하여” 실제 전시를 구현하는 누군가를 상상해보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전시를 상상하고 그것을 카탈로그로 만드는 작업에 초대하려고 합니다. 카탈로그의 형식은 제한이 없습니다. 사물이어도 되고 그 안에 작업이 있어도 됩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지나 캡션, 설명, 대상 샘플, 미디어 등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타이틀과 사물의 이름, 저자 그리고 날짜입니다. 인공물로서, 이것은 손으로 쓴 메모나 비디오, 조합된 페이지의 PDF, 아티스트 북, 모델, 쿼트, 오디오 녹음, 데이터 세트, 소프트웨어 등의 형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카탈로그는 상상의 전시를 드러낼 것입니다. 전시 카탈로그에 대한 아이디어를 전개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좀 더 광범위하게 던지는 질문들은 어떻게 그리고 무엇이 함께 전시할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을 재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참여를 위해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비엔날레는 2018년 9월 5일에 시작되고 8월 25일까지 모든 참여자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의 프로젝트가 그 시간까지 끝마칠 수 없다면,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서 당신의 작업을 받을 예정입니다. 혹은 가능하시다면 직접 가져다 주셔도 됩니다. 배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이메일로 보내실 때 주소:
xl@monoskop.org

우편이나 직접 가져다 주시는 경우에는 다음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코디네이터
02-2124-8978
서울미디어시티 비엔날레 사무소 지하 1층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61 (서소문동 37)
대한민국 04515
귀하께서 보내신 작업은 이름이 표기되며 설치에 포함됩니다. 방문객들은 그것을 만질 수 있습니다. 비록 전시장 지킴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보내준 카탈로그의 상태가 전시 내내 100% 보존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보내준 카탈로그는 온라인 사이트에도 함께 소개됩니다. 우리는 비엔날레 기간 동안 한국에 있는 참여자 몇

명을 초청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올해 비엔날레 주제는 "좋은 삶(Eu Zen)"입니다.

궁금하신 것이 많을 것입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당신의 것,

두산 바록, Monoskop
임경용, 서울 미디어시티 비엔날레 디렉토리얼
컬렉티브 & 더 북 소사이어티

[1] <https://www.e-flux.com/announcements/170381/seoul-mediacity-biennale-2018/>

[2] https://monoskop.org/Ideographies_of_Knowledge

[3] 문서를 예술적 장치로 사용하는 전통에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사진 (Neues Sehen, 미국 다큐멘터리 사진, 뒤셀도르프 사진 학교, New Topographics), 사물과 설치 (Institutional Critique, Archival Art, Marcel Duchamp의 La Boîte-En-Valise, Marcel Broodthaers의 독수리 분과), 개념 예술, 비디오 아트 및 영상 설치 (Chris Marker, Harun Farocki, Hito Steyerl).

[4] https://monoskop.org/Seth_Siegellaub

[5] <https://monoskop.org/log/?p=9848>





Joana Chicau

Choreographing a Catalogue, 2018

An art catalogue built on a 'choreographic script' which runs through a collection of URLs from the Monoskop online archive. Monoskop.org becomes a temporary stage for the script which gathers a series of images and text bringing-into-relation the different displayed results. Like a dance which goes from one archive material to another.

```
function dancing_catalogue() {  
  danceIndex = (danceIndex + 1)  
    % dance.length;  
  document.getElementById  
    ("stage").src = dance[danceIndex];  
}  
setInterval("dancing_catalogue()",2000)
```

Joana Chicau is a graphic designer, creative coder and researcher with a background in classical and contemporary dance, currently based in The Netherlands. <http://joanachicau.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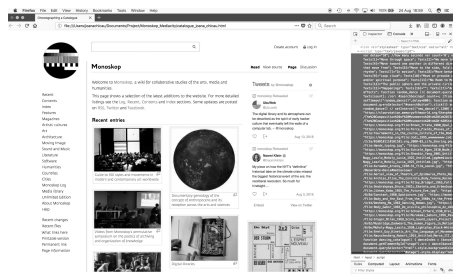
조아나 씨кау

카탈로그 안무, 2018

이는 예술 카탈로그로서 모노스콥 온라인 아카이브의 url 모음으로 실행되는 '안무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한다. Monoskop.org는 그 스크립트의 임시 무대가 되어, 서로 다르게 표시된 결과를 연결하는 일련의 이미지와 텍스트를 수집한다. 마치 하나의 아카이브 자료에서 다른 자료로 옮겨가는 춤처럼 말이다.

```
function dancing_catalogue() {  
  danceIndex = (danceIndex + 1)  
    % dance.length;  
  document.getElementById  
    ("stage").src = dance[danceIndex];  
}  
setInterval("dancing_catalogue()",2000)
```

조아나 시카우는 미디어 디자이너, 크리에이티브 코디이자 연구원이다. 고전 무용과 현대 무용과 관련한 경력이 있으며 지금은 네덜란드를 주 무대로 활동 중이다. <http://joanachicau.com/>



Joana Chicau

The Anatomies of Art Catalogue, 2018

The workshop is set to explore the notion of catalogue: articulations between form(s) and content(s), time(s) and space(s).

The participants are invited to engage with hybrid physical and digital (open source) tools, and overlaying techniques.

The workshop may be seen as a temporary lab to collectively share methodologies and discover modes of structuring new cataloguing possibilities and formats.

Method = somatic practices (movements, gestures, relations between bodies in time and space)

+ archiving practices (searching, collecting; structuring and presenting content);

Structure = introduction; embodiment exercises; prototyping; presentation and discussion.

Outcome = creating a catalogue which represents an imaginary exhibition;

The catalogue is here seen as the culmination of cultural *bodies*; political *bodies*; poetic *bodies*; imaginative *bodies* and the power to evoke other *bodies* and future anatomies to come. Opening up the horizon of what a catalogue is; or can be.

References:

"To explore the nature of 'thinking in action' or thinking-feeling-knowing' operative within artistic practice, especially produced within collaborative exchange.." — Emma Cocker, et al. (<http://www.choreo-graphic-figures.net/publications/book>)

"... an approach to research-creation as a practice of interdisciplinary event design, or to quote the original application, as the practice of creating innovative 'platforms for organizing and orienting live, collaborative encounters.'" — Erin Manning,

et al.

(<http://senselab.ca/wp2/immediations/anarchiving/anarchive-concise-definition>)

"The body is an arrangement in spacetime, a patterning, a process; the mind is a process of the body, an organ, doing what organs do: organize. Order, pattern, connect... an immensely flexible technology, or life strategy, which if used with skill and resourcefulness presents each of us with that most fascinating of all serials, The Story of My Life." — Ursula K. Le Guin (*Dancing at the Edge of the World: Thoughts on Words, Women, Places*)

The workshop takes place on 2 November 2018 from 2-7 PM in Agora, Seosomun Main Building, Seoul Museum of Art. Please subscribe on third floor at 3-13.

Joana Chicau is a graphic designer, creative coder and researcher with a background in classical and contemporary dance, currently based in The Netherlands. <http://joanachicau.com/>

조아나 씨кау

예술 카탈로그의 분석, 2018

카탈로그의 개념을 연구하기 위해 마련된 작업으로서 카탈로그의 형태, 내용, 시간 및 공간 사이의 이음매를 연구한다. 이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이브리드의 물리적 도구와 디지털 (오픈 소스) 도구 그리고 오버레이 기법을 경험하게 된다. 이 작업은 집합적으로 방법론을 공유하고, 새로운 목록화의 가능성과 포맷을 구성하는 방식을 밝히는 일시적 실험처럼 보일 수 있다.

* 방식 * = 소마 운동(동작, 몸짓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서의 신체 간의 관계) + 기록 보관(검색, 수집; 내용의 구성 및 발표)

* 구조 * = 소개; 구체화 실행; 시제품화, 발표 및 토론

* 결과 * = 가상 전시를 대표하는 카탈로그를 만든다.

이 카탈로그는 문화적 신체, 정치적 신체, 시적인 신체, 가상의 신체의 결정체이자, 또 다른 신체를 고안하고 앞으로의 분석 기법을 이끌 힘이다. 카탈로그가 무엇인지, 또는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지평을 열 것이다.

참고 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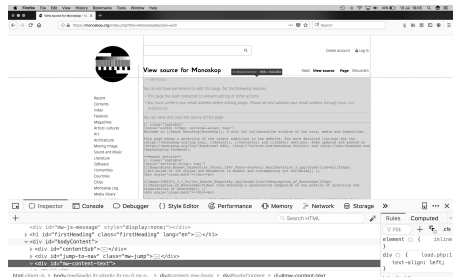
“예술적 방식(특히 협력적 교환 안에서 산출된) 내에서 작용하는 ‘행동 사고’ 또는 ‘사고-감각-인지’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다” - 엠마 카커 외 (<http://www.choreo-graphicfigures.net/publications/book>)

“...여러 학문 분야와 관련된 퍼포먼스 설계의 방식으로서 연구-창조와의 접근, 또는 기존의 응용을 그대로 인용하기 위한 연구-창조와의 접근, 그리고 활발하고 협조적인 접촉을 조직하고 조율하기 위한 혁신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방식으로서 연구-창조와의 접근이다.” - 에린 매닝 외

(<http://senselab.ca/wp2/immediations/anarchiving/anarchive-concise-definition>)

“신체는 시공간, 정형화와 절차의 배열이며, 정신은 신체, 장기와 장기 기능의 절차 즉, 체계화이다. 명령하고 양식화되어 연결되는...매우 유연한 기술 또는 삶의 전략이다. 이것이 기능과 수완으로 활용되면 그 어떤 연재물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내 삶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선물한다”. - 어슐러 르 권 (세상의 끝에서 춤추기: 단어, 여성, 장소에 관한 고찰)

조아나 씨кау는 미디어 디자이너, 크리에이티브 코디이자 연구원이다. 고전 무용과 현대 무용과 관련한 경력이 있으며 지금은 네덜란드를 주 무대로 활동 중이다. <http://joanachicau.com/>



Vuk Ćosić

The Missing Platforms, 2018

"Much of media art happens on software and hardware platforms. Actually all of it. This project is about four of them that do not exist but are necessary to read or play my files."

Vuk Ćosić is best known as internet art pioneer and author of numerous net.art projects, working extensively with ASCII.
<http://www.ljudmila.org/~vuk/>

북 코직

사라진 플랫폼, 2018

“미디어아트 대부분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일어난다. 사실상 거의 다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그중에 현존하지 않지만 내 파일을 읽거나 재생할 때 꼭 필요한 네 가지 플랫폼에 관한 것이다.”

북 코직은 인터넷 예술 개척자와 수많은 넷아트 (net.art) 프로젝트, ASCII 코드로 작업하는 작가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http://www.ljudmila.org/~vuk/>

[illegible]

Annet Dekker

Enduring Liveness: An Imaginary Retrospective of Tino Sehgal's Constructed Situations, 2018

The key functions of a museum are the collection, presentation, preservation and education of cultural and artworks for the enjoyment of, and to educate, the public. Performance art has been notoriously difficult for museums to handle, despite the 'easy' presentation the non-materiality of the art form challenges the conventional methods and practices of a museum. Artist Tino Sehgal had added to these problems, persisting in having no documentation of his performances, or better his 'constructed situations', in whatever form or way. While several books and some catalogues are written about his work, none of them show visual representations of the actual performances.

While I sympathize with Sehgal's aims and ideas, I'm also intrigued by the numerous ways in which documentation developed and expanded in the last two decades with more and more photos and videos appearing online. In this catalogue three perspectives are presented that open up the potential of documentation as a method to generate new articulations and ways of understanding, thinking and performing. Countering the "no photos allowed" from the press statements of the museums, with the documentation used by online news outlets and those created by visitors, the experience of being present at the performance can no longer be considered as a fixed or even final perspective. Instead the constructed situations continue to act through viewing, capturing and circulation. Navigating the various documents that are created idiosyncratically according to access (having a camera and an Internet connection) or choice (having

the willingness or courage to take an image and change the rules), the *Imaginary Retrospective of Tino Sehgal* adds to what theatre and performance scholar Sarah Bay-Cheng beautifully describes as "a multi-valent experience that is shaped and constructed by the individual experiences, choices, and negotiations of all parties within a connected network of information, sensations, and varying access points" (2012). At the same time, it might open up a desire for new performance to emerge.

Annet Dekker is an independent curator, Assistant Professor at University of Amsterdam and co-director of the Centre for the Study of the Networked Image at London South Bank University.
<http://aaaan.net>

아넷 데커

불멸의 생동 : 티노 세갈의 각색된 상황 가상 회고전,
2018

미술관의 주요 기능은 문화와 예술 작품을 소장,
소개, 보존 및 교육하여, 이를 향유하고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다. 행위 예술은 미술관에서 다루기가
매우 어려운 예술 분야이다. 아무리 '쉬운'
전시일지라도 무형의 예술 형태는 미술관의
전통적인 방식과 관행에 커다란 난제이다.
설상가상으로 티노 세갈은 자신의 행위 예술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각색된 상황 같은 작품을
선보였다. 또한 그의 작품에 관한 책과 카탈로그도
여럿이지만 그 어느 것에도 실제 퍼포먼스에 대한
시각적 소개가 없다.

난 세갈의 목표와 생각에 동의하지만 지난 20 년간
점점 더 많은 사진과 영상이 온라인에 출현하면서
기록이 발전하고 확대되어 온 방식에도 관심이 있다.

이 카탈로그엔 세 가지 관점이 실려 있는데, 이는
기록이 새로운 표현을 창출하는 수단이자,
퍼포먼스를 이해하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일깨운다. 미술관의 기자
회견장에는 '사진 촬영 금지' 팻말이 있지만, 온라인
뉴스 보도에 사용된 기록과 방문객에 의해 생성된
기록만으로도 실제 퍼포먼스의 체험은 변할 수
있으며 최종적 관점이 아닐 수도 있다. 그보다는
오히려 '각색된 상황'이 관람 되고 포착되고
유포되는 과정에서 계속 작용하게 된다. 접근(
카메라가 있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환경) 또는
선택(이미지를 취해 규칙을 바꾸려는 의지)에 의해
특이하게 생성된 다양한 기록들을 검색하는 것에
관해 연극 학자인 사라 베이-창의 다음과 같이
표현했으며, <티노 세갈의 가상 회고전>이 이를
뒷받침한다. “기록은 정보, 감각 및 다양한 접근
포인트의 네트워크에 접속된 상태에서 개인의 경험,
선택과 모든 이해 당사자의 협상에 의해 구성되고
형성된 다원적 경험이다.”(2012) 동시에 새로운
퍼포먼스가 창조되려는 욕망을 일깨우는 것일 수도
있다.

아넷 데커는 독립 큐레이터이자 암스테르담 대학의
조교수이며 런던 사우스뱅크대학교 네트워크
이미지 연구 센터의 공동 이사를 맡고 있다.
<http://aaaan.net>



Leslie Drost-Robbins

A Retrospective in Collaboration, 2018

"When asked by the Seoul Museum of Art for this retrospective, I questioned the significance of shipping costly artworks and re-exhibiting well documented performances to the Museum's audience. I'd found on-line many more of these 'Western retrospectives'* from better known artists than myself, and I had doubts about the works reaching the viewers and challenging them as they had done for me. I was about to decline the offer when Dušan Barok, editor of Monoskop.org, contacted me. Dušan said he'd be participating in the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at the same time as my retrospective. While reading up on this year's 10th anniversary event, and how the "Collective" wanted to structure it, an idea was planted.

I proposed inviting Mediacity participants to (Re)create my retrospective through a series of four workshops that could be worked out in no particular order using a workbook that I'd write.

The day-long Workshops offered are:

- A site-specific work in chalk
- A soundtrack to moving image piece
- An activist artwork derived from a text
- A Tangible Archive – the Seoul addition

The workshop, *A site-specific work in chalk* requires a team effort resulting in one outcome. The others are suited to individuals or small groups whose participation produces a series of outcomes. The participants of each workshop are asked to work together closely, collaborating as needed on everything from the day's schedule to joint decision-making processes. Every workshop includes time to reflect at the end of the day.

The Workbooks:

The Workbooks are contained in an envelope on four cards. One side of the card describes the workshop. The other side will display examples of my previous work and bits of inspiration.

How each Workbook works:

Participants read each edition as an invitation, interpreting and responding to it from their perspective formed by local social values and current concerns. Please make sure you document your efforts at <http://lasloplanet.org/mediacityseoul> and schedule the day to allow time to sit as a group and discuss the day's adventures."

Leslie Robbins, visual artist with a passion for public space and work ranging from large scale sculptures on two continents to her handheld tangible archive of *Wooden Soldiers*. <http://lasloplanet.org>

레슬리 드 로스트-로빈스

회고전 협업, 2018

서울시립미술관으로부터 이 회고전에 관하여 문의받았을 때, 나는 값비싼 예술 작품을 운반하는 것의 의미와 잘 기록된 퍼포먼스를 다시 전시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서 되물었다. 온라인을 통해 그곳의 '서양 회고전'에 나보다 더 유명한 예술가의 작품이 전시됐던 것을 보고, 그 작품들이 나에게 다가왔던 것과 같이 내 작품이 관객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 염려했다. 그래서 모노스콧의 두산 바록 편집장이 나에게 연락하여 서울 미디어시티 비엔날레에 참여할 것이며 이는 제안된 내 회고전과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이 제안을 거절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 '단체'가 10주년 기념 이벤트를 어떤 방식으로 조직하고자 하는지를 알아보면서 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래서 나는 내 회고전을 재창작하는 일에 미디어시티 참가자들을 초청할 것을 제안했다. 내가 쓰는 워크북을 쓰려는 일련의 워크숍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워크북은 특성 순서 없이 통용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포함한다:

초크로 그린 특정 한 구획

움직이는 이미지의 기초가 되는 배경 음악

텍스트에서 파생된 예술 작품

진행 중인 내 유형의 문헌에 추가 사항 기록하기

하나의 워크숍은 단일 결과를 내기 위해 하나의 팀이 필요하며, 다른 워크숍들은 개인 또는 소그룹이 참여하기에 적합하다. 각 워크숍 참가자들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하루의 일정을 짜는 것부터 필요한 경우 공동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까지 모든 부분에서 협동해야 한다. 또, 모든 워크숍은 하루를 마치기 전에 의견 반영 시간이 있어야 한다.

워크북:

워크북은 네 장의 카드와 함께 봉투에 들어 있으며, 카드 한 면에는 워크숍에 대한 설명이, 뒷면에는 이전 작업의 사례와(있으면 좋을) 영감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워크북 사용 설명서:

각 추가 사항은 유인물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지역 가까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의 사회 가치와 관심사는 최대한 참가자들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당신의 성과를

<http://lasloplanet.org/mediacityseoul>에 기록해야 하며, 날을 정하여 그룹으로서 둘러앉아 그 날의 모험에 관해 의논해야 한다.

레슬리 로빈스는 공공 미술에 몰두하는 시각 예술가로서, 두 대륙에 있는 대규모 조각상에서부터 '장난감 병정'의 초소형 유형 기록물까지 다양한 작품을 창작했다.

<http://lasloplanet.org>



Animal Dream Studies, 2018

At night, even in the most remote areas of the earth, animals dream about humans. These dreaming animals carry human ways of visualizing the world. They are hybrid beasts that perfectly fit our modern conception of the planet as an environment under constant watch. What does a human figure symbolize in animal dream interpretation? Do creatures dreaming about us dreaming about them open up a new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animals? Can a sleepwalking person ride a sleepwalking horse? Questions such as this are posed by the various works of this large-scale exhibition around the subject of animals and dreams.

Espen Sommer Eide is a composer and artist based in Bergen, Norway. Using music as a tool, his works investigates themes ranging from the linguistic to sensory biology, including the invention of new scientific and musical instruments for performative fieldwork.
<http://sommer.alog.net>

애니멀 드림 스튜디오, 2018

어느 날 밤, 지구상에서 가장 외진 곳에서 동물들이 인간에 관한 꿈을 꾸다. 이 꿈꾸는 동물들은 인간이 세상을 시각화하는 방식을 똑같이 따른다. 그들은 혼종의 짐승들로서 지속적인 감시에 노출된 환경이라는 이 행성의 현대적 개념과 완벽히 일치한다. 인간 모습이 동물 꿈의 해석에서 어떻게 상징화될까? 그 생물체들이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꿈을 꿀까? 몽유병이 있는 사람이 몽유병이 있는 말을 탈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이 동물과 꿈을 주제로 한, 이 대규모 전시회 작품에 의해 제기된다.

아스펜 소머 이드는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활동 중인 작곡가 겸 예술가이다. 그는 음악을 매개로 하여 주제를 연구하는데, 퍼포먼스적인 현장 연구를 위한 새로운 과학적 악기를 발명하는 것을 포함해 언어학에서부터 감각 생물학까지 주제의 범위가 다양하다. <http://sommer.alog.net>

Animal dream studies
Curated by Espen Sommer Eide

1. Russian Dog Dreaming Room (8 channel sound installation).
 2. The Three-eyed Salmon Meditation Center (infrasound massage apparatus, 3 channel video projection).
 3. Birds sorted by height (live in concert)
 4. Sleepwalking Cows (scene of sensuous activity)
 5. Upside-down dream space (ultrasound installation, gymnastic apparatus)
 6. Mosquito sleep deprivation chamber (interactive lab)
 7. The dream of the wolf (spoken word, sleep talking performance)
- Script: I am standing on the edge of a small bay, looking out over the water. The bay has two small headlands on each side, so I am only able to see parts of the body of water. A flock of swans land in front of me on the water. Then a flock of wolfs arrive trampling through the foam made by the birds landing. They run directly towards me. I become afraid, back off, the flock turns into just a single wolf trying to catch me. I turn to run away, a hare comes jumping from the opposite direction, leading the wolf away. The wolf goes for the hare. An eagle lands in front of the wolf, opens its chest and out pours a large quantity of berries. I remember them as reddish in color, perhaps like stone bramble berries. The wolf is stunned, the eagle catches the hare and flies away. Then it is me and the wolf again. There is a small outhouse behind me, so I run inside, the wolf follow close behind, then I sneak out again quickly and shut the door, so that I catch it inside. I move on, arrive at some green fields with short-cultivated grass. The fields are divided by canals that at first glance looks like they are made of small granite rocks of fist-size. The canals are dry, I climb down into one and discover that they are in reality built out of precious stones. I stay in the canal and continue walking on the stones. They shimmer red and bright.



Kenneth Goldsmith

The Complete Works, 2018

"For this catalog series, I wanted to create a catalog of my own works, which are in a sense indexical catalogues of preexisting texts. By reformatting a text that already exists and calling it literature, it becomes a part of a catalogue, a sort of Borgesian library. I wish that all texts—especially the most mundane ones—could be entered into the catalog of literature. If all texts were literature, then we'd no longer need literature, something I very much look forward to and am working towards. So by collecting and cataloguing everything book I've published, *The Collected Works* becomes strange to me – objectified and foreign, and in doing so becomes new to me again. Now I can open any page of my collected works and be surprised by what I read—and in this way, I become my ideal reader."

Kenneth Goldsmith is a poet living in New York City. He teaches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and is the founder of UbuWeb (ubu.com), the web's largest archive of avant-garde art.

케네스 골드스미스

완성된 작품, 2018

나는 이 카탈로그 시리즈에서 내 작품의 카탈로그를 만들고 싶었다. 이 카탈로그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텍스트의 색인 카탈로그이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텍스트를 다시 포맷하여 그것을 문학 작품이라고 칭함으로써, 카탈로그 일부를 만드는 것이다. 즉, 보르헤스 전집의 일부 같은 것이다. 나는 모든 텍스트, 특히 가장 흔한 것이 문학의 카탈로그에 포함되길 바랐다. 모든 텍스트가 문학이라면, 우리에게 더 이상의 문학은 필요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내가 몹시 기대하고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 따라서 내가 발행한 모든 책을 수집하고 목록화하여, <수집된 작품>은 객관적이고 이질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그 과정을 통해 내 작품들은 나에게 다시 새로워졌다. 난 이제 내 <수집된 작품>의 어느 페이지를 열어 보더라도 놀랄 것이며, 이렇게 나는 스스로 이상적인 독자가 되었다.

케네스 골드스미스는 뉴욕에 사는 시인이다. 그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온라인 최대의 야밤가르드 예술 기록 보관소인 우부웹(ubu.com)의 창립자이다.

[illegible]

Sarah Hamerman and Sam Hart

Secrets at Mediacity Seoul, 2018

Secrets at Mediacity Seoul traces a genealogy of artworks that examine the secret as an information structure, from the conceptual artworks of the 1960s to works that consider secrecy and encryption in today's social and technological context. While conceptual art's logic of dematerialization often undergirded an aesthetic of 'pure' information, it led artists from Douglas Huebler and Robert Barry to Mel Ramsden and Sophie Calle to investigate how secrets test the limits of what can be known and seen. But the role of secrets is political as well as epistemological. Works by artists such as Trevor Paglen, Jill Magid, Paolo Cirio and Hayal Pozanti consider how secrets organize the distribution of power, from algorithmic "black boxes" and state classification schemes, to new digital infrastructures built upon cryptographic primitives. Finally, *A Catalogue of Secrets* looks beyond the catalogue's documentary role, imagining how it might conceal or encrypt the absent artworks. The *Catalogue* forms part of the *Secrets* research and curatorial project (2017-2018), a collaboration between Sarah Hamerman and Sam Hart.

Sarah Hamerman is a librarian and arts researcher based between New Jersey and New York City. She currently works as Poetry Cataloging Specialist at Princeton University Library. Sarah is also a founding member of the Cybernetics Library.

Sam Hart is a New York-based scientist and publisher working across computational biology and distributed publishing. He is a founder member of Avant.org, the Cybernetics Library, and Gui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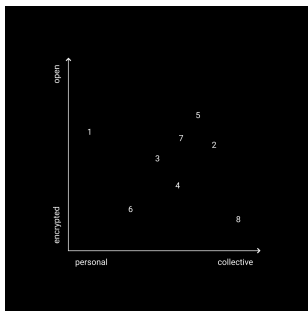
사라 해머만과 샘 하트

서울 미디어시티 비엔날레의 비밀들, 2018

<서울 미디어시티 비엔날레의 비밀들>는 예술작품의 계보를 추적한다. 그 작품들은 비밀을 정보 구조에 따라 검열하는 것으로서 1960 년의 개념 미술 작품부터 오늘날 사회적, 기술적 배경에서 기밀이자 암호로 여겨지는 작품들까지 다양하게 있다. 개념 미술의 '비물질화' 논리는 종종 '순수한' 정보의 미학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예술가 더글러스 후블러, 로버트 베리, 멜 램스덴과 소피 칼은 이 비밀이 알려지고 보이는 것의 한계를 어떻게 시험하는지를 조사했다. 다만 비밀의 역할은 정치적인 뿐 아니라 인식론적이다. 트레버 패글렌, 질 메지드, 파올로 씨리오와 하얄 포잔티와 같은 예술가들의 작품은 '블랙 박스' 알고리즘과 상태 분류 방법에서 암호 원시 요소 위에 구축된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까지 이 비밀이 파급력을 체계화하는 방식을 탐작하였다. 끝으로 '비밀 카탈로그'는 카탈로그 본연의 기록 역할을 뛰어넘어 빠져 있는 예술 작품이 어떻게 목록에서 감춰지고 암호화되었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이 카탈로그는 사라 해머만과 샘 하트의 공동 작업인 <비밀 연구>와 큐레이토리얼 프로젝트(2017-2018)의 일부를 구성했다.

사라 해머만은 뉴저지와 뉴욕 사이에서 활동 중인 도서관 사서이자 예술 연구가로 현재는 프린스턴대학교 도서관에서 시 목록화 전문가로서 일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네틱 도서관'의 창립 단원이다.

샘 하트는 뉴욕에 근거지를 두고, 과학자이자 컴퓨터 생명 공학과 분산 출판 분야의 발행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Catalogue, Exhibition, Photograph, 2018

"I do not see anything unless I open the book again. When the book is opened, there is a possibility of a handful that can enter this exhibition. I do not know who said that the exhibition is empirical. Why is the experience or case study important? Because the exhibition lives only once. I am thinking about an exhibition with only a voice, and an audio book may be enough. I sometimes output a large amount of photos by artists, friends or photos I take, with SNAPS application. I like to see the date of these images. Also, it is interesting to print some photos of exhibition with small size."

Seewon Hyun is co-director of AVP and an independent curator. As a curator, Hyun curated exhibitions including *Human Scale* (co-curator, 2014) at Ilmin Museum of Art in Seoul, and *Chunsoo Mart 2nd Floor* (2011 and 2012) at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and Festival Bom in Seoul.

도록, 전시, 사진, 2018

책을 다시 펴보지 않으면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 책을 열었을 때 이 전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한 줌의 가능성이 생긴다. 전시는 경험적이라고 누가 자꾸 말하는지 모르겠다. 경험이나 케이스 스터디가 왜 중요할까? 전시는 한 번만 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목소리만으로 된 전시에 관하여 생각해보고 있는데, 오디오 북으로 충분할지도 모르겠다. 아는 작가, 친구가 보내준 사진, 내가 찍은 사진을 가끔 스냅스 어플리케이션으로 대량 출력한다. 사진 찍은 날짜를 박아서 나는 그 날짜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 전시장 사진도 작게 출력해서 보면 재밌다.

큐레이터. 공간 시청각 공동 디렉터. 이미지와 미술에 관한 글을 쓴다. 여러 전시를 기획하고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지은 책으로 『아무것도 손에 들지 않고 말하기』 (2017), 『사물 유람』 (2014) 등이 있다.



도면함 Floor Plan Cabinet 2017.10.19-11.19 김문석◦박길홍◦박민나 & Sasa (44)◦윤지영 

Václav Janoščík and Eva Skopalová

Back to the Future: For New Histories of Materialist Art, 2018

With a dose of naiveté we may claim that the most significant shift within the artworld of past years (or at least its theoretical basis) has been the dissipation of (post)conceptual art and the rise of diverse strands of materialisms in the opposite vector.

However, material interests in art practice are far from new and it is necessary to point out instances of these tendencies in history, for example marble frescoes under *Madonna delle Ombre* in San Marco monastery and the rider in the clouds in Andrea Mantegna's painting of Saint Sebastian.

This can be paralleled with shifts in philosophy from the dominance of poststructuralism to flirtations with various speculative and realist approaches. While after Kant, philosophy focused on critique and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what we face now is the resurgence of realist and materialist thought.

The idea of transcending from the material to the immaterial was commonly used in religious paintings. For example, through pictorial rupture in the sky we can get access to metaphysical world, the sphere of God.

What becomes more than clear by now is that material tendencies have been active in the entire tradition of history of art and thinking. Our exhibition aims at tracing a concise yet full-fledged genealogy of material-oriented art.

We are grateful for financial support from the IFF (Institute of Fictions and Futures, Prague) without which we would not be able to gather the artworks and especially, we would not be able to extract Fra Angelico frescoes from San Marco monastery.

Václav Janoščík (1985) is a pedagogue, theorist and curator. He works as an assistant professor at the Academy of Fine Arts, Prague and the Department of Photography at FAMU, Prague. His focus is on philosophy, media theory and art theory.

Eva Skopalová (1991) graduated from the History of Arts at the Charles University, Prague and Theory and History of Contemporary and Modern Art at UMRUM, Prague. Her current focus is on anachronism and its impact on the history of art.

바츨라프 자노쉬크와 에바 스코팔로바

백 투 더 퓨처 : 유물론적 예술의 새 역사를 위하여,
2018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의 (또는 최소한 이론적
근거로는) 예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포스트) 개념 예술이 분해되고, 물질주의의 다양한
요소가 떠오른 것이라고 천진스럽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술 관행에서 물질적 관심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이러한 경향의 선례를 찾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 예로는 산 마르코 수도원에 있는 <
그림자의 마돈나>의 대리석 벽화와 안드레아
만테냐의 <세바스찬> 그림 속에 있는 구름 위
사람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우세했던 후기 구조주의가 잠시
반짝했던 사변적이고 사실적인 접근으로 옮겨간
철학적 변화와도 견줄 수 있다. 칸트 이후의 철학은
비판과 실재의 (사회적) 구성에 초점을 두었지만,
지금 우리가 직면한 것은 사실주의와 유물론의
부활이다.

유형에서부터 무형까지 초월한다는 개념은 주로
종교 그림에서 사용되었다. 예를 들자면 그림으로
표현한 하늘의 파열을 통해 우리가 형이상학적인
세계, 즉 하느님의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확실한 것은 그 물질적인 경향이 예술과
사회의 역사 전체에 활발히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우리 전시는 물질 중심 예술의 간결하면서도
완벽한 계보를 추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는 IFF(프라하 픽션 & 미래 연구소)의 재정
지원에 매우 감사하며, 그것이 없었다면 예술품들,
특히 산 마르코 수도원의 프레스코화 <프라
안젤리코>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바츨라프 자노쉬크(1985)는 교육자, 이론가 및
큐레이터이다. 그는 프라하에 있는
국립파인아트아카데미와 체코국립영화아카데미
(FAMU)의 사진학과에서 조교수로 활동 중이다.

그가 전념하고 있는 분야는 철학, 미디어 이론과
예술론이다.

에바 스코팔로바(1991)는 프라하의 카를대학교(프라하대학교)에서 예술사를 전공했다. 그리고
움프룸(UMPRUM)에서는 현대 미술의 이론과
역사를 공부했다. 현재의 관심은 아나크로니즘과
예술사에 미친 아나크로니즘의 영향이다.



Geraldine Juárez, Josefina Björk, Bhavisha Panchia

Prospekt, 2018

Script, VR and 3D by Geraldine Juárez
Performed by Josefina Björk
Curated by Bhavisha Panchia

A VR-essay and performance, *Prospekt* is a gaze guiding its audience through an exhibition. Tracing practices of colonial knowledge production and bio-prospecting to the modelling of contemporary data-prospecting shaping the “digital economy” today, *Prospekt* probes into the systematic search for economically valuable resources that are future oriented.

Information corporations monopolise data, which in turn, monopolise memory, and consequently power. This is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e, data and the economy. By institutionalising information gathering practices they dominate the ways in which imagings of the world are produced, classified and observed. The display of *the-world-as-an-endless-digital-exhibition*, expanding on the accounts of Derek Gregory and Timothy Mitchell, is the evolution of a thriving practice dating back to colonial bio-prospecting and the development of display techniques from the diorama of the early 1800s to today's VR headsets. Exploring these continuities across practices that overlap, *Prospekt* brings into focus the logic and mechanisms behind corporate investment in digital institutionality.

Platforms, devices, architectures and techniques of display bring distant objects, artefacts and documents into proximity. They are used to map, organize and manage the world's information, and assert Michel de Certeau's proclamation that “In history, everything begins with

the act of separating, gathering, and turning certain objects that were otherwise distributed into ‘documents’.” Existence is affirmed through perpetual capture: nature into culture into data. All as an endless-digital-exhibition.

Organising information is never innocent.

Geraldine Juárez is a Mexican-Swedish visual artist using time-based media, sculpture and performance to consider the materials, histories, technics, politics and economics shaping the dominant narratives and contexts in contemporary media culture. <http://geraldine.juarez.se>

Bhavisha Panchia is a curator and researcher of visual and audio culture currently based in Johannesburg, South Africa. <https://nothingtocommit.org>

Josefina Björk is a Swedish artist and performer. Her practice revolves around participatory performances, both in her own projects as well as in her collaborations with other artists. <http://www.josefinabjork.com/>

제랄딘 후아레스, 조세피나 비요크, 바비샤 판치아

프로스펙트(안내서), 2018

대본, VR 및 3D: 제랄딘 후아레스

퍼포먼스 : 조세피나 비요크

큐레이팅 : 바비샤 판치아

VR 에세이와 퍼포먼스인 <프로스펙트>는 관람객에게 전시회를 시각적으로 안내한다. 식민 지식 생산의 관행과 생물 자원 탐사 관행에서부터 오늘날 '디지털 경제'를 형성하는 현대 데이터 탐사 견본까지 폭넓게 추적하여,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미래 지향적 자원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에 대하여 자세히 조사한다.

정보 기업은 데이터와 메모리를 차례로 독점한 다음, 그 결과로 권력을 손에 쥔다. 이것이 문화, 데이터 및 경제 사이의 관계이다. 그들은 정보 수집 방식을 획일화하여, 전 세계 이미징이 제작, 분류 및 관측되는 방식을 장악한다. 데릭 그레고리와 티모시 미첼의 의견에 의해 전개되는 이 '무한한 디지털 전시로서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은 과거 식민 생물 자원 탐사 시절부터 성공적 관행이 진화해 온 과정, 그리고 1800년대 초반의 디오라마에서 오늘날의 VR 헤드셋에 이르는 전시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보여준다. <프로스펙트>는 이러한 지속성이 중첩되는 사례를 조사하여, 디지털 공공 단체에 대한 기업의 투자 이면에 있는 논리와 메커니즘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전시의 플랫폼, 장치, 구조 및 기술 덕분에 멀리 있는 객체, 인공물 및 기록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 그들은 세계 정보를 지도로 만들고, 체계화하고 관리하며, 다음과 같은 마이클 드 샤토의 선언을 강력히 지지한다. “역사상 모든 것은 달리 '문서'로 유포된 것을 제외한 특정 객체를 분리하고 수집하고 변형하는 행위에서 시작된다.”

존재는 끊임없는 획득을 통해 유지된다. 생물 자원에서 시작하여 문화를 거쳐, 이제는 데이터를 획득하기에 이르렀다. 마치 무한 디지털 전시처럼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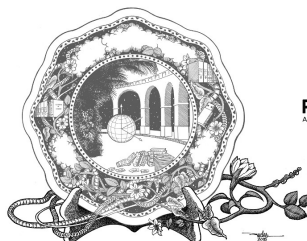
정보를 편성하는 것은 전혀 무고하지 않은 일이다.

멕시코계 스웨덴인 시각 예술가 제랄딘 후아레스는 시간 기반 미디어와 조소 그리고 퍼포먼스를 활용하여, 현대 미디어 문화에서 지배적인 이야기와 배경을 형성하는 재료, 역사, 기술, 정치, 경제에 주의를 기울인다. <http://geraldine.juarez.se>

바비샤 판치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활동 중인 시각 및 청각 문화 연구원이자 큐레이터이다.

<https://nothingtocommit.org>

조세피나 비요크는 스웨덴 예술가이자 공연자로서 자신의 프로젝트뿐 아니라 다른 예술가의 공동 작업에서도 참여 예술 퍼포먼스를 위주로 한다. <http://www.josefinabjork.com/>



PROSPEKT
A VR essay by Geraldine Juárez
Performed by Josefin Björk
Curated by Bhavina Paschia

prospekt.space

Illustration by Jaime Ruelas

Mara Karagianni and John Colenbrander

Vintage Orange Wrappers, 2018

For Lothar-Günther Buchheim, who in the 1950s, 1960s and even the 1970s carefully smoothed out every orange paper he came across and kept in albums, the pictures that were printed on the feather-light wrapping papers of citrus fruits were Pop Art in the best and most original sense.

In 2011 the Buchheim Museum of Fantasy planned to exhibit a selection of about 200 of the colorful "miniature posters", but within one week before the opening his brother, Klaus-Günther Buchheim, claimed that the material for the show was his and not from his brother. In the ensuing lawsuits the exhibition took place but the catalogue was ordered to be destroyed.

Only one copy survived.

Mara Karagianni and John Colenbrander met in Rotterdam, married each other and work together to make life easier. Presently they discover Greece by canoe.

마라 카라지아니와 존 콜렌브랜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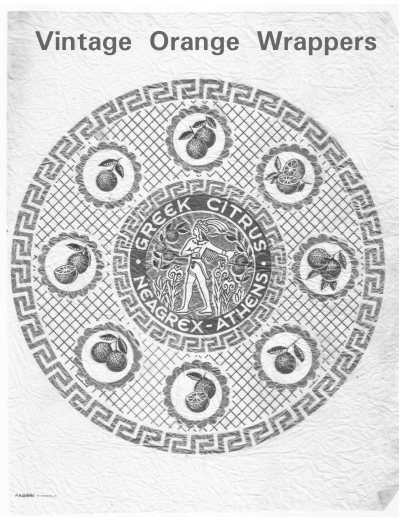
시계태엽 오렌지, 2018

1950년대부터 1970년까지 오렌지 종이를 꼼꼼히 벗겨 내어 앨범에 보관한 로타-군터 부하임에게는 시큼한 과일 모양의 포장지에 인쇄된 그림들은 최고의 팝아트이자 본래 감각에 가장 가까운 팝아트였다.

2011년 부하임 판타지 미술관은 200종의 <미니어처 포스터>를 전시하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개관 일주일 전에 그의 동생 클라우스 군터가 전시회 재료를 두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잇따른 재판 중에 가까스로 전시회는 열렸지만, 카탈로그는 파괴되어야 했다.

단 하나의 사본만이 살아남았다.

마라 카라지아니와 존 콜렌브랜더는 로테르담에서 만나 결혼했으며, 더욱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함께 일한다. 그들은 현재 카누를 타고 그리스를 탐험하고 있다.



Richard Kitta and Michal Murin

Self-Pages, 2018

This work represents a model of a hypothetical book in virtual environment. Its concept i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book as a hierarchical functional object that has its packaging, volume, shape, shell, its content, references, memory, and linear structure. The fluidity of its imaginary pages disrupts the left-to-right reading convention, but it also assumes the act of writing that defined it, which is nonlinear in this case. Synthesis and reconstruction of the virtual book in the form of animation is one of the potential solutions or one of the many algorithms that defines it at a given moment.

The assumed introductory and imprint pages, pages containing graphs in an unknown language, pages containing picture material and references, and blank pages are made of fluid, undefined material. The transition between the pages gradually vanishes, the book is a digital continuum, the question arises whether it is capable of reading itself. A part of virtual matter (errata) is flowing outside defined framework, finds itself in the irrational space (space-of-space) and is forever lost. Somewhere inside, however, information is kept which does not penetrate the surface, it constitutes a sacrosanct volume of data. Analysis-synthesis-analysis is an authorial narrative, it supports the apparent gradation of the work. The virtual data defined somewhere in the beginning of this combinatorial game is mixed, bent, drained, there only remains an unreadable core. Although the content of the book is open, it is forever locked not only from its readers but also from its authors.

Richard Kitta (1979) is a multimedia artist, pedagogue and cultural activist. His work involves interactive objects, digital environments and visual poetry. He is a co-founder of DIG Gallery in Košice, Slovakia, and editor-in-chief of the *ENTER* magaz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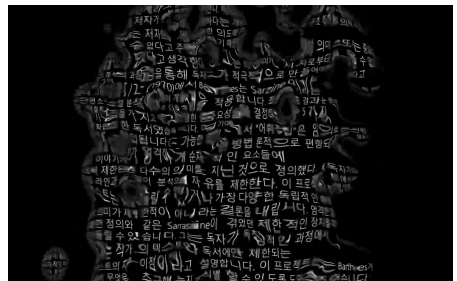
Michal Murin (1963) is a conceptual artist focusing on intermedia and sound art. He also works as a publisher, editor and teacher.

셀프 페이지, 2018

이 작품은 가상 환경에서의 가정적 책의 표본을 소개한다. 이 작품의 콘셉트는 책을 포장, 분량, 모양, 겉장, 내용물, 참고 문헌, 메모리 및 선형 구조를 가진 가상의 기능적 객체로 이해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가상 페이지의 유동성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기는 관행을 거역하기도 하지만, 비선형적인 작문 행위를 수용하기도 한다. 애니메이션 형식의 가상 도서를 합성 및 재편성하는 것은 잠재적 솔루션 중 하나이거나 정해진 시간 안에 그것을 정의하는 많은 알고리즘 중 하나이다.

이는 가정된 소개 글과 임프린트 페이지, 알 수 없는 언어로 그려진 그래프를 포함하는 페이지, 그림과 참고 문헌을 포함하는 페이지, 유동적이며 불분명한 요소로 만들어진 빈 페이지까지도 수용한다. 그리하여 페이지 간 경계가 점차 사라지고, 책이 디지털 연속체가 되면, 이것의 가독성에 대한 의문이 생겨난다. 실제적 문제(오타자)는 정의된 틀 밖으로 벗어나 이성이 없는 공간(공간 속 공간)으로 이동하여 영원히 사라져 버린다. 그러나 표면을 뚫고 나오지 않은 정보들이 내부 어딘가에 저장되어 불가침의 데이터 분량을 조직하고, 분석-합성-분석이라는 저자의 내러티브가 작품의 외관상 전개를 뒷받침한다. 이 복합적 방식의 시작점 어디에선가 정의된 가상 데이터는 섞이고, 구부러지고, 배출되어서 읽을 수 없는 골조만 남긴다. 따라서 이 책의 내용은 완전히 공개돼 있음에도, 독자와 저자들 모두에게 막혀 있는 것이다.

리처드 키타 (1979)는 멀티미디어 아티스트이자 교사, 문화활동가이다. 그의 작업은 인터랙티브 사물들, 디지털 환경과 시각화된 시를 포함한다. 그는 슬로바키아 코시체에 있는 DIG 갤러리의 공동 창업자이며, ENTER 매거진의 편집장이다.



Signe Lidén

Weather Reports Back, 2018

The commission *Weather Reports Back* from the South Korean artist duo Jiyeon Kim and Gangil Yi is a live streaming instrument installed at the facade of International Atmosphere Preservation Center ran by artist Amy Balkin. The stream started exactly one year after the earth's atmosphere was submitted to the UNESCO's World Heritage list and will run far into the future.

Signe Lidén is an artist based in Bergen and Amsterdam. Her work examine man-made landscapes and their resonance and spans from sound installations, sculpture, video and performance to more documentary forms such as sound essays and archives. <http://signeliden.com>

시그니 리디언

날씨 보고, 2018

대한민국의 2 인조 예술가 김지연과 이강길의 의뢰작 <날씨 보고>는 라이브 스트리밍 장치로서, 예술가 에이미 발킨이 운영하는 국제 대기 보존 센터 외부에 설치돼 있다. 이 스트리밍은 지구 대기가 유네스코 세계 유산 목록에 등재된 지 정확히 1 년 뒤에 시작되었다.

시그니 리디언은 베르겐과 암스테르담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예술가이다. 그녀의 작품은 인간이 만든 풍경과 그것의 반향을 조사하며, 작품의 영역은 음향 장치, 조각상, 영상과 퍼포먼스부터 음향 에세이와 아카이브처럼 조금 더 다큐멘터리적인 유형에 이른다. <http://signeliden.com>



Silvio Lorusso and Sebastian Schmieg

Artworks That Use Online Outsourcing To Talk About Online Outsourcing, 2018

A collection of artworks that make use of online outsourcing platforms such as Amazon Mechanical Turk, Upwork, and Fiverr in order to artistically engage with online outsourcing.

Silvio Lorusso is a designer without qualities, an artist without a gallery and a writer without a spell checker.
<http://silviolorusso.com/>

Sebastian Schmieg's work engages with the algorithmic circulation of images, texts and bodies, tracing new hybrid structures that blur the boundaries between human and software, individual and crowd, or labor and leisure. <http://sebastianschmie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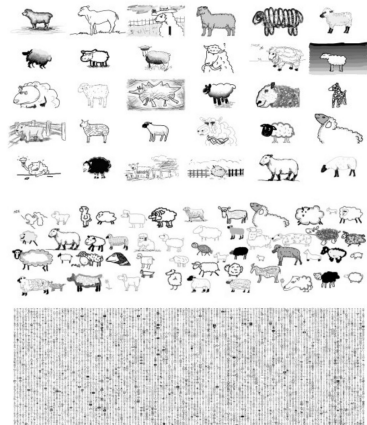
실비오 루소와 세바스찬 슈미그

온라인 아웃소싱을 이용하여 온라인 아웃소싱을 다루는 작품들, 2018

예술적으로 온라인 아웃소싱을 활용하기 위해 '아마존 메커니컬 터크', '업워크'와 '피버'와 같은 온라인 아웃소싱을 사용하는 예술 작품 컬렉션이다.

실비오 루소는 디자이너 자질이 없는 디자이너이며 갤러리가 없이 활동하는 예술가이자 철자 검사기를 사용하지 않는 작가이다.
<http://silviolorusso.com/>

세바스찬 슈미그의 작업은 이미지, 텍스트 및 신체의 알고리즘 순환과 인간 대 소프트웨어, 개인 대 군중, 또는 노동 대 여가의 경계를 흐리는 새로운 복합 구조를 밝혀내는 것에 관련이 있다.
<http://sebastianschmieg.com/>



Ilan Manouach

Harvested, 2016

More than two thousand adult movies were bulk harvested from peer-to-peer websites directly to a server location. Following two separate scripts, the clips were automatically trimmed down to the first ten minutes and then broken into thousands of low-quality JPEG snapshots waiting to be filtered. The pool of images was later submitted to crowdsourcing services that enable the coordination of human intelligence to perform tasks that computers are currently unable to do. A selected group of microworkers was asked to filter thousands of these images according to an intentionally vague instruction: whether or not they contain contemporary art.

Harvested brings to the foreground five-hundred found artworks from households, studios, movie sets and other heterotopias of the adult film industry. While this anthology underlines the importance for a contextual, industry-specific art history, by the same token it posits the need to activate peripheral vision in regard to scopophilic practices. While IKEA paintings are pervasively dominant, one can find works from modern masters such as a rip-off from Fernand Léger, an unknown Joan Miró, *Castle and Sun* from Paul Klee but also contemporary works such as *Quote*, 1964, a print from Robert Rauschenberg, a series of paintings from Mark Rothko, *School of Fontainebleau* from Cy Twombly and even some replicas from Frank Stella and Lucio Fontana. The book is a co-production between publishers in Portugal, Denmark, Switzerland, France, Belgium, Greece, Italy, Spain, Mexico and South Africa.

Ilan Manouach is a musician, a book publisher and a multidisciplinary artist with a specific interest in conceptual and post-digital comics. <http://ilanmanouach.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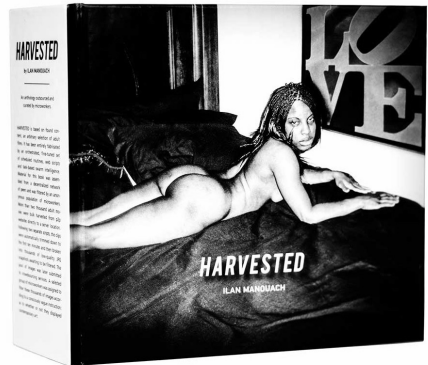
일란 마누아쉬

수확물, 2016

2 천 편 이상의 성인 영화는 P2P 사이트에서 서버 위치로 대량 수집된다. 두 개의 개별 스크립트에 따라 클립 영상은 자동으로 첫 10 분만 잘린 다음 필터링을 기다리는 수천 개의 저화질 JPEG 스냅샷으로 쪼개진다. 이미지의 집합소는 추후에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에 제출되어 지금은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간 지능을 조정한다. 선발된 마이크로워커(*단순 노동) 집단은 모호한 지시를 받고 수천 개의 이미지를 필터링한다.

<수확물>은 가정, 스튜디오, 영화 세트장 및 성인 영화 산업의 이상 파급 매체에서 수집한 500 여 점의 작품을 전면에 내세운다. 이 모음집은 문맥적, 산업별 미술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같은 이유로 관음증 행태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도 제시한다. 여기엔 대체로 이케아 그림이 많지만, 근현대 거장들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유명 화가 페르낭 레제와 무명의 호안 미로의 도용 작품 그리고 파울 클레의 <성 그리고 태양>이 그 예다. 또한 로버트 러센 베르크의 인쇄물인 <인용문, 1964>, 마크 로스코의 그림 시리즈, 사이 톨블러의 <폰텐블로 학파> 및 프랭크 스텔라와 루치오 폰타나의 모사화와 같은 현대 작품도 있다. 이 책은 포르투갈, 덴마크, 스위스, 프랑스, 벨기에,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멕시코와 남아프리카의 출판사가 공동으로 제작하였다.

일란 마누아쉬는 여러 분야에 정통한 예술가로서, 실험적이고 개념적인 만화를 그린다. 그는 2003년부터 12 권의 책을 출간했으며, 네 개의 작품집을 큐레이팅하였다. <http://ilanmanouach.com/>



Darija Medić

Painters Disconnected, 2018

Painters Disconnected is a series of mobile web screenshots showing Google Image search results for paintings of famous artists as they are shown before the website loads. What they reveal is a mosaic of images with a predefined layout and color scheme for each search/artist. The color-coded Mondriaan-like series of rectangles only becomes visible in cases of slow Internet connection, pausing the seamless high-speed transfer of data. This pattern also reveals algorithmic decision-making behind the ordering of images, becoming a catalogue in itself. Image search collections are archived per individual painter on an Instagram account (https://www.instagram.com/painters_disconnec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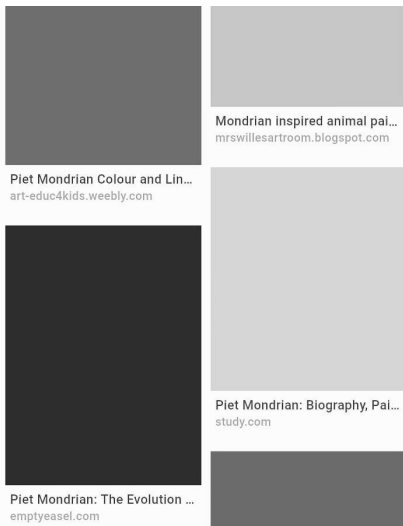
Darija Medić is a post-new media practitioner and researcher, working in the fields of media art, critical writing, curating and production.
<http://syntaxerror.com/>

다리아 메딕

끊어진 화가들, 2018

<끊어진 화가들>은 일련의 모바일 웹 스크린샷으로서, 구글 이미지 검색 서비스에 유명 화가들의 작품을 검색했을 때 웹사이트가 로딩되기 전에 보이는 화면이다. 이 수많은 이미지의 모자이크는 각 검색어 및 화가에 따라 미리 정해진 레이아웃과 색채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색상으로 암호화된 몬드리안의 <사각형> 시리즈 작품들은 인터넷 접속이 느려서 초고속 데이터 전송이 끊기는 경우에만 검색 결과에 나타난다. 이러한 패턴은 이미지를 배열하여, 그 자체가 목록이 되는 경우에도 알고리즘적 판단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 이미지 검색 컬렉션은 인스타그램 계정 https://www.instagram.com/painters_disconnected/ 에 화가별로 수집 및 기록돼 있다.

다리아 메딕은 포스트-뉴 미디어의 실무가이자 연구자로서 미디어 아트 분야에서 비평 집필, 큐레이팅 및 프로덕션 등의 활동을 한다.
<http://syntaxerror.com/>



Monoskop in collaboration with the Archive of the Museum of American Art-Berlin

Remembering the "Seth Siegelau:
'Exhibitions', 2069", 2018

"Seth Siegelau: *Exhibitions, 2069*" was an exhibition related to the history of exhibitions. It was based on catalogues and photo-documents of the series of Siegelau's exhibitions from the late 1960s. Those were the exhibitions of Conceptual Art that expanded not only the notion of the artwork, but also the notion of the art exhibition itself.

These exhibition were remembered first through the paintings of the catalogues/ documents presented at the "xero, kline & coma" gallery (London, 2011) and later at the Hessel Museum at Bard (2016).

These Siegelau's exhibitions are now being re-remembered through this exhibition based on the photo-reproductions of the paintings of the Siegelau's catalogues and installation views.

The Museum of American Art, which opened its doors in 2004 in Berlin, contains a collection of paintings and objects that 'repeat' significant works from 20th century American-cum-International Art History.

모노스콥과 베를린 미국미술 전시관 기록 보관소의
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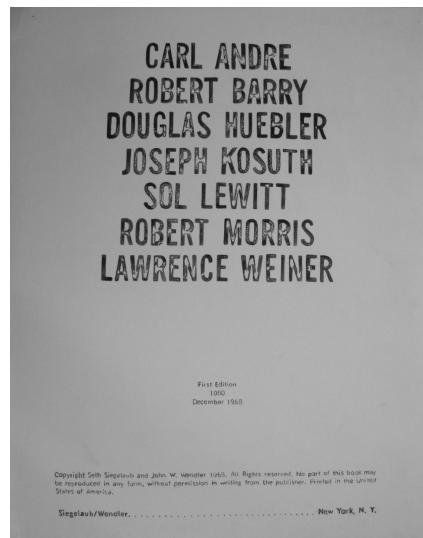
“세스 시겔업의 ‘전시회’ , 2069”를 기억하며,
2018

<세스 시겔업의 전시회, 2069>는 전시회 역사와 관련된 전시로서, 1960년대 후반 이후 시겔업 전시회의 카탈로그와 사진 기록을 기반으로 했으며, 예술 작품의 개념뿐 아니라 예술 전시 자체의 개념까지 확장한 개념 미술의 전시회였다.

이 전시회들은 “제로, 클린 & 코마” 갤러리(런던, 2011)에서 발표된 카탈로그 및 기록의 그림에서 처음 회상되었다가, 후에 바드의 헤셀 미술관 (2016)에서 다시 상기되었다.

이 시겔업의 전시회들은 이번 전시에서 시겔업의 카탈로그와 설치 계획 그림을 카메라에 담은 사진을 바탕으로 다시 회고되고 있다.

미국미술 전시관은 2004년 베를린에서 개관하였으며 회화 작품 컬렉션과 20세기 미국미술사와 세계미술사에서 '반복적으로' 중요한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다.



Multimedia Institute Zagreb
(Tomislav Medak, Marcell Mars, et al.)

System.hack(), 2006

A moment of excellence in programming is called a hack. A perfect hack is surprising, mediagenic, innovative in employing technology, funny and non-violent. *System.hack()* is every hack that opens up a closed system or makes an open system dynamic.

System.hack() exhibition seeks to find connections between moments of excellence in different fields of human production. This exploration always has to provide answers to the following two questions: What system is being hacked?, and How this system is being hacked, or what is a specific hack in an individual work?

The exhibition environment is not a gallery, but the interior of a hotel room. The hotel room is supposed to function as the lowest common denominator of living environments users / viewers / visitors / readers inhabit. The hotel room also functions as a Table of Contents for the *System.hack()* book.

Tomislav Medak is a philosopher with interests in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media theory and aesthetics. He co-founded the MaMa – Multimedia Institute, Zagreb in 1999.

Marcell Mars is a free software advocate, cultural explorer, and social instigator. He co-founded the MaMa – Multimedia Institute, Zagreb in 1999.

자그레브 멀티미디어 연구소
(토미슬라브 메당, 마르셀 마스 외)

시스템해킹 *System.hack()*,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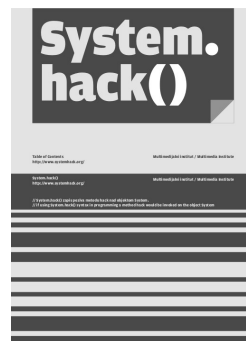
프로그래밍의 정점을 해킹이라고 한다. 완벽한 해킹은 경이롭고 매스미디어적이며, 혁신적으로 기술을 사용하는 데다 재미있고 비폭력적이다. <시스템해킹 *System.hack()*>은 폐쇄된 시스템을 개방하거나 개방된 시스템을 역동적으로 만드는 모든 해킹을 말한다.

<시스템해킹 *System.hack()*> 전시는 다양한 창작의 우수성 사이에 연결 고리를 찾고자 한다. 이 탐색은 항상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어떤 시스템이 해킹을 당하는가?’ 그리고 ‘이 시스템이 어떻게 해킹되는가? 개인 작업에 고유한 해킹은 무엇인가?’이다.

이 전시의 배경은 갤러리가 아니라 호텔 객실의 내부이다. 호텔 객실은 사용자, 시청자, 방문자, 독자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거주 환경으로서 기능해야 한다. 호텔 객실은 <시스템해킹 *System.hack()*> 책의 목차이기도 하다.

토미슬라브 메당은 현대 정치철학, 미디어 이론 및 미학에 몰두한 철학자이다. 1999 년에 자그레브 멀티미디어 연구소(MaMa)를 공동 창립했다.

마르셀 마스는 무료 소프트웨어 옹호자, 문화 탐가, 소셜 선동가(social instigator)로서 1999 년에 자그레브 멀티미디어 연구소(MaMa)를 공동 창립했다.



Michal Murin

USB^{ook}, 2018

The works artists forgot to make.

A catalogue of a hypothetical exhibition whose theme was a presentation of works of art which have not been created because the artists forgot to make them, in spite of they had been commissioned for the exhibition.

Every so often, it happens that an artist is invited to a thematic exhibition to create new work responding to the curator's vision or initiator's call. In the rut of daily routine, sometimes and to someone even more so it occurs that the artist forgets to make a commissioned work for an exhibition. The uncreated works of artists obviously do not exist in their final form, even though they at least thought about them. The work *USB^{ook}* is a catalogue of non-created, non-existent and non-exhibited works which can still be made.

Michal Murin (1963) is a conceptual artist focusing on intermedia and sound art. He also works as a publisher, editor and teacher.
https://monoskop.org/Michal_Murin

미할 무린

USB^{ook},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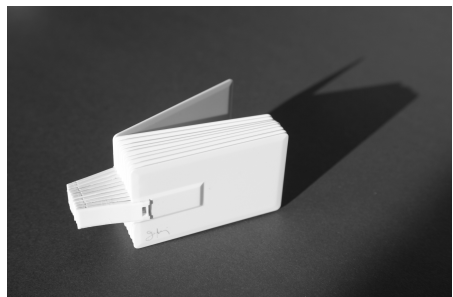
예술가들이 깜박하고 안 만든 작품들.

예술 작품의 발표가 주제였던 가상 전시회의 카탈로그로, 전시회를 위해 위탁 받았는데도 예술가들이 제작하는 것을 잊어버렸기에 제작되지 않은 작품들을 다뤘다.

예술가는 종종 테마 전시회에 초청되어, 큐레이터의 비전이나 전시회 창안자의 요청에 응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든다. 하지만 헛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에서 가끔은, 또 누구에게는 더 많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술가들은 전시회를 위해 약속한 작품을 깜박하기도 한다. 이 제작되지 않은 작품은 설사 작품에 대해 생각한 적 있다고 해도 명백히 완성된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USB^{ook}>은 제작되지도 않았고 존재하지도 않으며 전시되지도 않아 여전히 제작될 수 있는 작품들의 카탈로그이다.

미할 무린은 인터미디어와 사운드 아트를 전문으로 하는 개념 예술가이다. 또한 발행인 겸 편집자이며 교사이기도 하다.

https://monoskop.org/Michal_Murin



Possible Bodies
(Femke Snelting and Jara Rocha)

Somatologies, 2018

Somatologies contains 3D-renderings of diverse densities, wondering about the regimes of truth that converge in volumetric biomedical images. There is a coalition between tomography and topology at work to align math, flesh, computation, bone, anatomic science, tissue and language. But when life is made all too probable, Possible Bodies asks obliquely: what other "bodies" can be imagined?

Somatologies moves through the political fictions of somatic matter. Rolling from outside to inside, from a mediated exteriority to a computed interiority and back, it reconsiders the potential of unsupervised somatic depths and (un-)invaded interiors. Unfolding along situated surfaces, this post-cinematic experiment jumps over the probable outcomes of contemporary informatics, towards the possible otherness of a mundane (after)math.

Somatologies is a trans*feminist exercise in and of disobedient action-research. It cuts agential slices through technocratic paradigms in order to create hyperbolic incisions that stretch, rotate and bend Euclidean nightmares and Cartesian anxieties.

Possible Bodies is a collaborative research, interrogating the concrete and at the same time fictional entities of "bodies" in the context of 3D-tracking, -modelling and -scanning.
<http://possiblebodies.constantvzw.org>

있을 법한 신체(팜케 스넬팅과 자라 로차)

소마토폴로지, 2018

<소마토폴로지>는 다양한 밀도의 3D 설계를 제시하면서, 체적 측정용 생체 이미지를 수렴하는 현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계산, 지방, 수치, 뼈, 해부 과학, 조직 및 용어를 정렬하기 위해 단층 X 선 촬영법과 국소 해부학은 일체화되었다. 하지만 사람이 전부 다 있을 직하고 있을 법한 신체로만 이뤄져 있다면 과연 또 다른 '신체'를 떠올릴 수 있을까?

<소마토폴로지>는 신체 문제에 대한 정치적 가설을 꿰뚫었다. 신체 밖으로부터 안으로, 매개인 외부에서 산출된 내부와 후면으로 들어가면서, 방치된 육체의 심오함과 피침된(피침되지 않은) 신체 내부의 잠재력을 재고한다. 표면을 따라 서서히 펼쳐지는 이 영화적인 실험은 현대 정보과학의 유망한 결과를 뛰어넘어 평범한 산출의 색다른 가능성을 향해 간다.

<소마토폴로지>는 불복종 행동 연구에서의 트랜스 페미니즘 운동이다. 이는 유클리드의 기하학과 카테시안의 좌표를 늘이고 회전하고 굽히는 쌍곡선의 절개를 만들기 위해 테크노크라시 패러다임을 통해 중요 부분을 잘라낸다.

<있을 법한 신체>는 공동 연구로서 구체적 관념에 질문을 던지면서 동시에 3D 트래킹, 3D 모델링 및 3D 스캐닝의 맥락에서 '신체'의 허구적인 존재를 탐구하였다.

<http://possiblebodies.constantvzw.org>



Purple Noise

An Exhibition Turned Into an Global Feminist Protest Turned Into a Catalogue, 2018

In the summer of 2018, a German artist, famous for having a past as cyberfeminist and a present as technofeminist, was invited to Stuttgart in the South of Germany, to create an exhibition dealing with issues of gender and technology as part of a large festival. During her research, she got in touch with numerous fellow artists and activists, and in a process of collective realization, they found that the time has come, not for another exhibition, but for a global technofeminist upheaval.

Learning from the dark forces that understand how to manipulate national referenda and presidential elections, they flooded social media platforms – an area they had previously avoided in order to protest against the centralisation and privatisation of digital communication. Very quickly, however, they have learned how to “motivate” thousands of followers, how to “inspire” them to like and “share” their contents, and even to contribute their own agendas. Within a few weeks, what had started as a small protest, has grown exponentially and conquered not just the Net but also traditional media. They gained enormous power, more than they ever imagined, and now decisions have to be made on how to use this power. Come and help us decide! What would you do if you had power over the Internet – and thus the real world?

<https://www.facebook.com/PurpleNoiseUP>
<https://twitter.com/PurpleNoise1>
<https://www.instagram.com/purplenoiseup/>

First she was all alone, but then more and more joined in. Now, they are many and nobody can stop them anymore.

퍼플 노이즈

전자구적 페미니스트 저항이 된 전시가 카탈로그가 되다, 2018

과거엔 사이버 페미니스트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테크노 페미니스트로 활동 중인 유명한 한 독일 예술가가 2018년 여름, 독일 남부의 슈투트가르트에서 대규모 축제의 일환으로 성적이고 기술적 쟁점을 다루는 전시를 만들었다. 디지털 통신의 중앙 집권과 사유화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국민 투표와 대통령 선거를 조작하는 방법을 배워, 이전엔 회피해 왔던 영역인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빠르게 수천 명의 지지자에게 '동기 부여'하고 그들을 좋아하도록 '자극'하고 그들의 콘텐츠를 '공유'하며 그들의 의제를 유포하는 방법까지 배웠다. 그리하여 작은 항쟁으로 시작된 것이 몇 주 만에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온라인뿐 아니라 전형적인 미디어까지 장악했다. 그리고 그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막강한 힘을 얻었으며 이제는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여러분이 우리의 결정에 힘을 보태길 바란다. 당신이라면 인터넷과 현실 세계에서 권력을 가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https://www.facebook.com/PurpleNoiseUP>
<https://twitter.com/PurpleNoise1>
<https://www.instagram.com/purplenoiseup/>

그녀는 처음엔 혼자였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 지금은 그 수가 아주 많아져서 누구도 더는 그들을 막을 수 없다.

PURPLE NOISE



FACEBOOK: PURPLENOISEUP
INSTAGRAM: PURPLENOISEUP
TWITTER: @PURPLENOISE1
#IMAKENOISE
#IUSEMYFEELERS

Jürgen Rendl

Notes of a Roadsider, 2018

Random encounters with rootless people and places. Peripheral centers and the surface currents of a region post-anything. When trust in the unknown becomes the key to move on. Departing from a fictive suburb, I suggest an itinerary inspired by the people, places, and situations I encountered throughout the years. A collection of marginalia from places defined through nothing else, but these encounters. Because after all, everybody is a migr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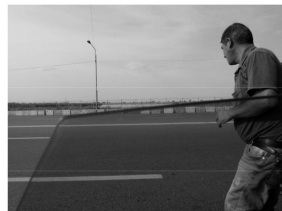
Jürgen Rendl is a radio editor and researcher dedicated to peripheries, collecting marginalised knowledge at the fringes of urbanity and mobility.

위르겐 렌들

방랑자의 메모, 2018

방랑자, 장소와의 무작위적 조우를, 우편을 부칠 수 있는 지역의 피상적 흐름과 이차적 중심지를, 미지의 세계에 대한 믿음이 앞으로 나아가는 비결이 되는 때를 담았다. 나는 가상의 교외 지역을 떠나 지난 수년간 내가 만난 사람, 장소 및 상황에서 영감을 받았던 여행 일정을 선보인다. 이 메모의 모음은 이러한 만남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장소에서 쓰인 것이다. 결국은 모두가 이동하기에 만남이 없으면 그 장소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위르겐 렌들은 라디오 편집자이자 연구원으로, 도시성과 이동성의 끝자락에서 주변 도시를 연구하고 하찮게 여겨지는 지식을 수집하는 데 몰두한다.



Notes of a Roadsider

Jürgen Rendl

Danny Snelson

Apocalypse Reliquary, 2018

Inhabiting an Earth continuously subjected to catastrophic events, *Apocalypse Reliquary* presents a survey of artifacts left behind by every recorded global cataclysm from 1984 to the present. Objects on display range from the circuit boards of Y2K to ejecta from the collision with Halley's Comet. The exhibition includes spaceships from the Pleiades photon belt, the radioactive remains of countless nuclear armageddons, relics from the Zeta Reticuli star system, and a wide array of artifacts delivered by dozens of religious raptures. Each entry in the *Apocalypse Reliquary* is inscribed within the ongoing disaster of the present. Organized chronologically, the catalogue begins in 1984, immediately following the collapse of the planet under the strain of the population bomb. The reliquary will continue to annotate the ruins of global annihilation until a final apocalyptic event renders all recording impossible.

Danny Snelson (1984) is an Assistant Professor of English at UCLA. His online editorial work can be found on Jacket2, PennSound, Eclipse, UbuWeb, and the EPC. <http://dss-edit.com/>

대니 스넬슨

종말 유물, 2018

우리는 끊임없이 비극적인 사건을 터지는 지구에 산다. <종말 유물>은 1984년부터 지금까지 기록된 모든 전세계 대재앙에 의해 생성된 인공물을 조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전시물의 범위는 Y2K(밀레니엄버그)의 회로판부터 핼리 혜성과의 충돌에서 나온 방출물에게까지 이른다. 전시는 플레이아데스 광자대의 우주선, 무수한 핵전쟁의 방사능 잔해, 제타 레타쿨리 항성계의 유물, 많은 종교적 환희로부터 산출된 다양한 인공 유물을 포함하고 있다. <종말 유물>의 각 출품 유물은 현재 진행 중인 재앙의 범위 내에 있다. 연대기별로 정리된 이 카탈로그는 1984년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행성이 붕괴한 직후부터 시작한다. <종말 유물>은 최후의 종말을 초래할 사건으로 그 어떤 기록도 불가능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전 세계 재앙의 폐허를 추가할 것이다.

대니 스넬슨(1984)은 UCLA의 영문학 조교수로서 그의 온라인 편집 작품은 재킷 2(Jacket2), 펜사운드(PennSound), 이클립스(Eclipse), 우부웹(UbuWeb)과 EPC에서 볼 수 있다. <http://dss-edit.com/>



Supermuch

Weavers of Discontent: Luddism Revisited,
2018

Weavers of Discontent: Luddism Revisited is an exhibition set in the year 110.000, during the IV Mighty and Lavish Human Counter-Empire, which walks the visitor through the history of objects, tools and tactics devised to evade, hack, obfuscate and/or resist dominant technology. The oldest objects in the exhibition date from the 19th century and were developed by the original Luddite movement

The exhibition can be visited at the Sherwood Gallery, a temporary autonomous zone situated on a spaceship parked just outside the Ludd Spacesquating Station. The objects in the exhibition were either donated by private collectors or acquired through archaeological excavations and scavenges of the now defunct XIV Archive of the Internet Archive.

In the 19th century, a group of working class people known as the Luddites emerged in Anglofrankia XI.V.C9 (in the region formerly known as United Kingdom) to form a resistance against the application of technological advancement in the deskilling and devaluing of their jobs. At stake was not a deep-seated technophobia or resistance to progress, but a very real, very material political demand: job security and appropriate working conditions. It was, after all, the ages old struggle of Labour vs Capital. Since then, the term has been used prodigally to signify all sorts of technological resistance and/or discomfort: from anti-technology movements that defend a romantic return to the unspoiled past, through to the technophobes, the conspiracy theorists, the technologically inept and, more like their forefathers,

the counterculture movements that understand the need to ward off techno-deterministic misconceptions and resist not technology per se, but the exploitative infrastructures and powers engendering it. The ability to conflate all of these developments under one single banner made it possible, throughout the ages, to void them of their political context and so more easily dismiss any sort of resistance as inherently anti-progress, retrograde or downright namby-pamby. *Weavers of Discontent* revisits the history of these myriad 'Luddit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class, gender and racial contexts begetting their fears, concerns, demands and resistance. *Weavers of Discontent* does not wish to comment on their degree of success or endorse the morals, motivation, politics or strategic acumen, rather amplify and/or rectify our knowledge of Luddites old and new by reading them through the lens of political economy and re-contextualizing them within their respective socio-historical environments.

The exhibition in the form of a text-based computer game is available for download at <http://supermu.ch/discontent>.

Supermuch is an independent game studio founded by Lídia Pereira and Mathijs van Oosterhoudt which explores the possibilities of play for challenging pervasive everyday infrastructures.

슈퍼머치

불만스러운 직공 : 러다이즘의 재방문, 2018

<불만스러운 직공: 러다이즘의 재방문>은 'V 마이티와 라비시 휴먼 카운터-왕국 시대(IV Mighty and Lavish Human Counter-Empire)' 110,000년을 배경으로 한 전시이다. 관람객들에게 지배적인 기술을 회피하고 해킹하고 해방 놓고(놓거나) 저항하면서 고안된 물건, 도구 및 전술의 역사를 소개한다. 이 전시에서 가장 오래된 물건은 19세기의 것으로 최초의 루다이트 운동으로 개발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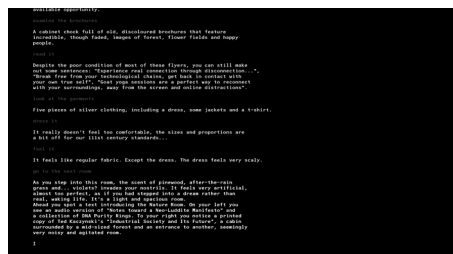
이 전시는 셔우드 갤러리의 루드 스페이스스퀴팅 역 바로 밖에 주차된 우주선의 임시 자치 구역에서 열린다. 이 전시의 전시물은 개인 수집가가 기부했거나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인터넷 아카이브의 XIV 아카이브(XIV Archive of the Internet Archive)'의 고고학 발굴과 폐물 수집을 통해 취득한 것이다.

19 세기에 러다이트로 알려진 노동자 계급 집단이 '앵글로프랭키아 XI.V.C9' (예전에는 영국으로 알려진 지역)에 등장하여, 자신들의 일자리를 줄이고 가치를 절하하는 기술적 발전의 응용에 반대하였다. 위태로운 것은 깊은 기술 공포증이나 진보의 거부가 아니라, 매우 실제적이고 중요한 정치적 요구였다. 바로 정년 보장과 적절한 근무 조건이다. 어쨌든 결국 그것은 '노동과 자본' 사이의 오래된 싸움이였다. 그 이래로 이 용어는 온갖 기술적 저항과 불만을 표명하는 데 술하게 사용됐다. 때 묻지 않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사수하는 반기술 운동에서부터 신기술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 음모론자들, 기술 무능력자들, 그들 선조와 비슷한 사람들, 기술 결정론적 생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체제 운동가들, 기술 자체는 거부하지 않으나 착취적인 구조와 이를 초래하는 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줄곧 그 용어가 사용돼 왔다. 이 모든 전개를 하나의 표상 하에 아우르는 능력 덕에 그들은 시대를 초월해 정치적 맥락에서 벗어나게 했고, 따라서 모든 종류의 저항을 근본적으로 반진보적이고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자

지나치게 감상적인 사람이나 하는 것으로 치부해 쉽게 묵살할 수 있었다. <불만스러운 직공>은 두려움, 걱정, 요구 및 저항을 초래하고 있는 계급, 성별과 인종적 배경 이해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러다이트'의 역사에 재방문한다. <불만스러운 직공>은 그들의 성공 정도에 관하여 논평하거나 그들의 도덕심, 동기 또는 전략적 통찰력을 지지해 주길 바라지 않는다. 차라리 정치 경제학의 관점에서 그것을 읽고 판단하여 각각의 사회-역사적 환경에 맞게 다시 문맥화함으로써 신구의 러다이트에 관한 지식을 넓히거나 진실을 바로잡길 바란다.

텍스트기반 컴퓨터 게임 형식의 이 전시는 <http://supermu.ch/discontent> 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슈퍼머치는 리디아 페레이라와 매티스 반 오스터하우스가 설립한 독립 게임 스튜디오로서, 만연해 있는 일상적 인프라를 깨뜨릴 만한 게임의 가능성을 연구한다.



Technopolitics Working Group
(John Barker, Sylvia Eckermann, Doron Goldfarb, Armin Medosch, Gerald Nestler, Felix Stalder, Axel Stockburger, Matthias Tarasiewicz, Thomas Thaler, Ina Zwerger, et al.)

Tracing Information Society - A Timeline.
Version 4 / Object 1, 2018

Tracing Information Society - a Timeline offers a discursive framework for exploring the genesis and current configuration of the information society.

The main visual element of the *Timeline* is a large-scale print that traces the evolution of our shared techno-cultural realities. Its five hundred entries draw attention to different events, genealogies and narratives from the fields of art, culture, media, politics, economy, technology, and social life that have been relevant for the shaping of the information society.

The project's common objective is to investigate from a critical, explorative standpoint the heterogenic historical processes that are structured by techno-economic paradigms. Workshops focus on trans-disciplinary and trans-cultural conversations to connect these processes to the cultural forms of the respective historical moment and place.

For the Seoul Mediacity Biennale, Technopolitics transforms the *Timeline* into the book-size collection of its impossible project to analyze the information society as an open totality.

Technopolitics Working Group was founded in 2010 in Vienna and comprises about ten core members and thirty contributors mostly working as artists, theoreticians, curators and journalists inside and outside major institutions. <http://technopolitics.info>

테크노폴리틱스 워킹 그룹(존 바커, 실비아 에커만, 도론 골드파브, 아민 메도시, 제럴드 네슬러, 펠릭스 스탈다, 액셀 스탁버거, 마티아스 타라시비에츠, 토마스 탈러, 이아 주에그 외)

정보 추적 사회 - 타임라인 버전 4/객체 1, 2018

<정보 추적 사회 - 타임라인>은 정보 사회의 기원과 현재의 구조를 조사하는 담론적 틀을 제공한다.

<타임 라인>의 주요 시각 요소는 대규모 인쇄물로서, 우리의 만연한 테크노 컬처 현실의 진화 과정을 추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것의 500 개 항목은 정보 사회 형성과 관련된 예술, 문화, 미디어, 정치, 경제, 기술 및 사회생활 분야의 여러 사건, 계보와 이야기에 주목한다.

프로젝트의 공동 목표는 기술-경제적 패러다임에 의해 조성된 이질적 역사 과정을 비판적, 탐구적 관점에서 조사하는 것이다. 워크숍은 초학문적이고 초 문화적인 대화에 집중하여 이러한 과정을 각각의 역사적 순간과 장소의 문화적 형태와 연결하려 한다.

서울미디어시티 비엔날레를 위해 테크노폴리틱스(Technopolitics)는 <타임라인>을 책 크기의 컬렉션으로 바꾸는데, 이 컬렉션은 정보 사회를 공개적으로 분석하는 불가능한 프로젝트이다.

테크노폴리틱스 워킹 그룹은 2010 년에 빈에서 설립됐으며 주요 인원 10 명과 공헌자 30 명으로 구성돼 있다. 단원들은 주요 기관 내외부의 예술가, 이론가, 큐레이터와 언론인이다.

<http://technopolitics.info>



Charles Turner

Commercial Signs in Hangul and Transliterated Korean from Tappan New York to Closter New Jersey, 2018

Our eyes are so often led down the street by signs which bear commercial or regulatory messages. These signs collapse our perception of space to literate dimensions, and capture our attention without regard for our interest.

Since at least the 1990s, Korean settlement on the western side of the Hudson, in Bergen County New Jersey and Rockland County New York, has been strong enough to support institutions catering mainly to Koreans. As with the population at large, these institutions inhabit buildings that reflect North American aesthetics and sign fabrication practices. Apart from their function as designation, the Korean words on signs, both transliterated and in Hangul, form the strongest mark of Korean culture in this suburban landscape.

This pamphlet catalogs many of the signs that form this enclave to the north of New York City.

Charles Turner is the author of *Xenakis in America*, published as an open access book on Monoskop Log in 2014. Mr. Turner holds a PhD in Musicology from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and is currently a song writer in Manhattan.

찰스 터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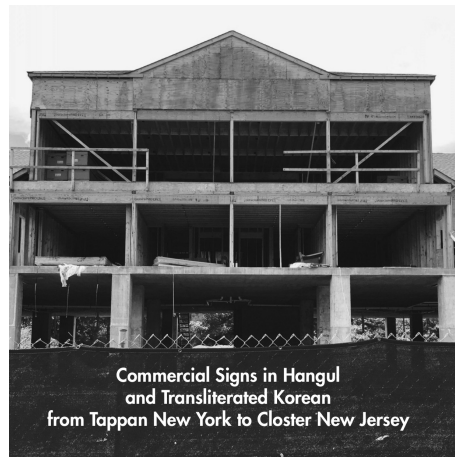
뉴욕 타판에서 뉴저지 클러스터 지역에 있는 한글 간판과 문자 번역된 한국어, 2018

우리의 눈길은 거리의 상업용 간판이나 규제 표지판에 머문다. 이러한 표지는 우리의 공간 감각을 상실하며 흥미와 상관없이 우리의 주의를 빼앗는다.

최소 1990년대부터 허드슨강 서부 지역, 뉴저지 베르겐 카운티와 뉴욕 로클랜드 카운티 등지에 정착한 한국 이주민들에겐 한국 식당을 존속하게 할 만한 충분한 힘이 있었다. 한국인의 인구 분포율이 높았으므로 이 한국 식당들은 북미의 미학과 간판 제조 관행을 따른 건물들 사이에 존재해 왔다. 간판의 기능적인 면을 떠나서 간판의 한국어 글자는 영어뿐 아니라 한글로도 표시돼 이 외곽 지역 풍경에 강한 한국 문화의 인상을 남겼다.

이 소책자엔 뉴욕 북부 한국인 타운의 간판 사진들을 수록돼 있다.

찰스 터너는 미국 크세나키스의 작가로서 2014년에 누구나 문서를 만들고 고칠 수 있는 <모노스콥 로그>를 창간했다. 또한 뉴욕대학교에서 음악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맨해튼에서 작곡가로 활동 중이다.



Takuma Uematsu, Yuki Hayashi, Tadashi Kobayashi, Tetsuya Goto

I Want You / Anata ga hoshii, 2016

I Want You / Anata ga hoshii is a catalogue of an art project between Takuma Uematsu (artist), Yuki Hayashi (artist), Tadashi Kobayashi (curator) and Tetsuya Goto (designer). The project deals with the body-mind dualism in the Internet era, and the catalogue archives four exhibitions: two of them took place in Düsseldorf, Germany and another two in Osaka, Japan. One of the two Düsseldorf exhibitions was fictional, albeit approved by gallery director as one of their projects. There is a floor plan of the exhibition and an exhibition flyer, designed by a well-known French graphic designer, André Baldinger. However, there is no mention of it being fictional. The plausibility of exhibition reflects project's concept (body-mind). Art catalogues are important archives of exhibitions and events, however, they only show us aspects of them. The authors aimed to exaggerate the nature of art catalogues and question what is an exhibition.

Takuma Uematsu is an artist based in Osaka. His works combine a range of materials to explore the theme of links between physical matter and life. <http://takumauematsu.com/>

Yuki Hayashi is an artist and a film maker. He started to produce video works in 1997, and has participated in numerous film festivals and exhibitions at home and abroad. <http://kanyukuyuki.tumblr.com/>

Tadashi Kobayashi is a curator of Hyōgo Prefectural Museum of Art in Kobe. Now working on next show "Heroes and People in the Japanese Contemporary Art."

Tetsuya Goto is a self-taught graphic designer, lecturer, editor and curator based in Osaka, Japan. <http://www.outofoffice.jp>

우에마츠 타쿠마, 하야시 유키, 고바야시 타다시, 고토 테츠야

너를 원해, 2016

<너를 원해>는 우에마츠 타쿠마 (예술가), 하야시 유키 (예술가), 고바야시 타다시 (큐레이터), 고토 테츠야 (디자이너)가 참여한 예술 프로젝트 카탈로그이다. 이 프로젝트는 인터넷 시대의 몸과 마음의 이원론을 다룬다. 이 카탈로그에는 총 4 개의 전시회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그중 두 전시는 독일의 뒤셀도르프에서, 나머지 두 전시는 일본의 오사카에서 열렸다. 뒤셀도르프의 두 전시회 중 한 전시는 가상의 전시였지만 갤러리 디렉터의 승인을 받았다. 잘 알려진 프랑스 그래픽 디자이너인 앙드레 발딩거가 디자인 한 전시회의 평면도와 전시 전단지도 있지만 전시가 허구라는 정보는 없다. 전시회의 그럴듯함은 프로젝트의 개념 (몸 - 마음)을 반영한다. 예술 카탈로그는 전시회와 행사를 기록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전시의 일부분만을 보여준다. 저자는 예술 카탈로그의 특성을 과장해서 보여주고, 전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우에마츠 타쿠마는 오사카에 거주하는 예술가이다. 그의 작품은 물질적인 문제와 삶의 연결고리를 탐구하기 위해 다양한 물질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진다. <http://takumauematsu.com/>

하야시 유키는 예술가이자 영화 제작자이다. 그는 1997 년부터 영상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했으며, 국내외 수많은 영화제 및 전시회에 참여했다. <http://kanyukuyuki.tumblr.com/>

고바야시 타다시는 고베의 효고 현립 미술관 큐레이터이다. 현재는 "일본 현대 미술의 영웅들과 사람들"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

고토 테츠야는 일본 오사카에 거주하는 그래픽 디자이너, 강사, 편집자 및 큐레이터이다. <http://www.outofoffice.jp>

Marina Valle Noronha

An Atlantic Route for Exhibitions, 2018

Uma Rota Atlântica para Exposições / An Atlantic Route for Exhibitions is a collection of materials for a curatorial exercise where participants are invited to use scissors and masking tape to assemble posters of imaginary exhibitions of artworks that cross the Atlantic Ocean waters in a journey from Europe to South America.

Marina Valle Noronha is a curator and researcher. She was born in Brazil and lives in Finland.

마리나 발레노로나

전시회를 위한 대서양 루트, 2018

<우마 로타 아틀란티카 / 대서양 루트>는 큐레이토리얼 연습을 위한 자료 모음이다. 참가자들은 대서양 바다를 가로지르는 유럽에서 남미로 가는 여정을 담은 작품들로 이루어진 가상의 전시 포스터를 가위와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하여 자르고 붙일 수 있다.

마리나 발레노로나는 큐레이터이자 연구자이다. 그녀는 브라질에서 태어났으며 현재는 핀란드에서 살고 있다.

←



Amy Suo Wu

Thunderclap, 2017

Steganography as form of secret writing, is the art and science of hiding information within public information. At the centre of this practice is the instrumentalisation of the innocent to reach new audiences and evade surveillance, censorship and control. Fashion is generally regarded as 'toothless' or 'politically harmless'. Can this apparent innocence be instrumentalised as a cover to spread alternative knowledge?

Thunderclap attempts to answer this provocation by steganographically distributing the work of He-Yin Zhen (1886-1920?) — a theorist who figured centrally in the birth of Chinese feminism — on fashion accessories such as patches and ribbons. These accessories contain English quotes of He-Yin Zhen essays nested around a QR code that when scanned, downloads her original Chinese writing. Because her writings were considered radical and dangerous in her lifetime, they have been gradually erased from the historical record in China. He-Yin Zhen's writings remind us that feminism is not only a contemporary Western movement but also one that was articulated in imperial China. As such, *Thunderclap* aims to reinsert He-Yin Zhen's writing back into Chinese history and public knowledge in the context of China.

Born in China, raised in Australia and based in the Netherlands, Amy Suo Wu is an artist, designer and teacher. <http://amysuowu.net>

에이미 수오 우

천둥소리, 2017

스tega노그래피는 비밀 작문의 한 형태로서 공용 정보에 정보를 숨기는 예술이자 과학이다. 이러한 관행의 핵심은 새로운 독자에게 접근하고 감시, 검열 및 통제를 피하려고 무고한 사람들을 도구화한다는 것이다. 패션은 일반적으로 세력이 없거나 정치적으로 무해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패션이라는 명백한 무고가 도구화되어 다른 지식을 전파하는 걸 감추는 가리개가 될 수 있을까?

<천둥소리>는 이 분개에 대한 답으로, 패치와 리본 같은 패션 액세서리에 스테가노그래피를 적용하여 하진(1886-1920)의 업적을 유포하려 한다. 하진은 중국 페미니즘의 탄생에 주요 역할을 한 이론가이다. 이 패션 액세서리의 QR 코드 근처에 적혀 있는 하진의 에세이 영어 인용문을 스캔하면 그녀의 원본 중국어 글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했다. 왜냐하면 그녀의 글이 살아생전에는 급진적이고 위험한 것으로 여겨져, 역사적 기록이 중국에서 서서히 지워졌기 때문이다. 하진의 글은 우리에게 페미니즘은 현대의 서양 운동일 뿐만 아니라 중국 현실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 따라서 <천둥소리>는 하진의 글을 중국 역사와 대중의 인식 속에 다시 써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에이미 수오 우는 중국에서 태어나 호주에서 자랐으며, 현재는 네덜란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 디자이너, 교사이다.
<http://amysuowu.net>



AS WE FOLLOW THE ETYMOLOGIES OF THE WRITTEN CHARACTERS 奴奴, FOR 'SLAVE' AND 婢, FOR 'MAID', IN THE HISTORY OF THE STATE OF WEI, WE WILL SEE THAT BOTH CHARACTERS REFER EXPLICITLY TO WOMEN '女'. [...] 婦 (MEANING 'MATURE WOMEN') THIS CHARACTER IS PRONOUNCED FU AND WRITTEN WITHIN AN IDEOGRAPH SUGGESTING THE FIGURE OF A WOMAN HOLDING A BROOM; THE BOOK OF LIFE (THE SECTION ON QULI OR ETIQUETTE) EXPLAINS: WHEN THE GRAND MASTER WANTED TO TAKE A WOMAN AS HIS WIFE, HE USED THE EXPRESSION "GETTING [SOME-]



扫描阅读全文

ONE] TO CLEAN AND SWEEP [THE HOUSE]." THIS IS TO ASSIGN THE RESPONSIBILITIES OF A SLAVE TO HIS WIFE AND MAKE HER OBEY HIM. - "ON THE REVENGE OF WOMEN", 1907, BY HE-YIN ZHEN.

IF SONS AND DAUGHTERS ARE TREATED EQUALLY, RAISED AND EDUCATED IN THE SAME MANNER, THEN THE RESPONSIBILITIES ASSUMED BY MEN AND WOMEN WILL SURELY BECOME EQUAL.

- "THE FEMINIST MANIFESTO", BY HE-YIN ZHEN, 1907.



请扫描

IN MY VIEW, THE ULTIMATE GOAL OF WOMEN'S LIBERATION IS TO FREE THE WORLD FROM THE RULE OF MAN AND FROM THE RULE OF WOMAN. - "ON THE QUESTION OF WOMEN'S OF LIBERATION", 1907, BY HE-YIN ZHEN



请扫描

TODAY'S MARRIAGE IS NOT MARRIAGE FOR LOVE BUT MARRIAGE FOR MONEY. IN THE CLASSIC TEXTS OF CHINA, MARRIAGE FOR WEALTH IS NAMED A CUSTOM OF THE "FOREIGN BARBARIC PEOPLES." TODAY, HOWEVER, MARRIAGE FOR WEALTH HAS SWEEPED OVER THE WHOLE WORLD; LOVE IS NO LONGER AN OBSTACLE TO THE DOMINANCE OF WEALTH. IS



扫描阅读全文

THIS NOT LAMENTABLE? - "ECONOMIC REVOLUTION AND WOMEN'S REVOLUTION", DEC 10, 1907, BY HE-YIN ZHEN

**Archive of the Museum
of American Art-Berlin**

Josefina Björk

Joana Chicau

John Colenbrander

Vuk Ćosić

Annet Dekker

Leslie Drost-Robbins

Espen Sommer Eide

Kenneth Goldsmith

Tetsuya Goto

Sarah Hamerman

Sam Hart

Yuki Hayashi

Seewon Hyun

Václav Janošík

Geraldine Juárez

Mara Karagianni

Richard Kitta

Tadashi Kobayashi

Signe Lidén

Silvio Lorusso

Ilan Manouach

Marcell Mars

Tomislav Medak

Darija Medić

Multimedia Institute

Zagreb

Michal Murin

Bhavisha Panchia

Possible Bodies

Purple Noise

Jürgen Rendl

Jara Rocha

Sebastian Schmieg

Eva Skopalová

Danny Snelson

Femke Snelting

Supermuch

Technopolitics Working

Group

Charles Turner

Takuma Uematsu

Marina Valle Noronha

Amy Suo Wu